

제1장

한국의 주요 지표체계 비교 연구

박영실 · 김석호 · 김인겸

요 약

□ 연구배경

- 최근 근거에 기반한 정책관리 및 GDP 한계 인식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표 체계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 하지만 새로운 지표체계가 개발개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지표체계와 중첩이 발생하고 지표체계 간 이론적 수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한 지표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연구내용

- 국내외적으로 지표체계 확산 현황을 살펴보고 통계청 주요 지표체계들을 중심으로 구조틀, 작성목적, 영역 및 개별 지표 수준에서 지표체계 간 중첩성을 분석하였다.
- 또한 유사한 지표체계 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 결론

- 유사한 지표체계에 대한 조정은 이론적 조정과 통계적 조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론적 조정은 불가피하게 잔여범주를 발생시키므로 정치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반면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지표체계 간 개별 지표 수준에서 발생하는 비일관성에 대한 통계적 조정은 통계청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용어: 지표체계, 조정, 국가주요지표, 국민 삶의질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목표

제1절 서론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혹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표를 찾곤 한다. 최근 국내에서 지표의 개발과 확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의 도서 및 자료 목록 중 지표와 연관된 7,852건 중 86.5%(6,793건)가 2006년 이후에 집중되었다.¹⁾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지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것도 이 즈음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운영 중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PRISM)에 등재된 연구용역 보고서 중 제목에 ‘지표’가 포함된 487건 중 대부분(85.4%, 416건)이 이 시기(2006~2015년)에 몰려 있다.²⁾

2000년대 중반 이후 지표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관리(evidence-based policy management)하는 풍토의 확산과 관계가 깊다. 지표는 정책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둘째,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ion, GDP)이 사회 혹은 환경을 위협하는 징후들을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GDP를 넘어 행복, 지속가능발전, 녹색경제 등 다양한 주제영역을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이 결합하면서 지표 개발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한 지표가 공존할까? 하나의 지표로 전체 사회의 모습을 일거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항상 지표보다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특정 측면을 강조한 여러 지표가 동시에 개발되고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기구의 지표 구축 사례를 살펴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도 중요시하지만, 회원국의 구체적 사회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에 입각한 여러 지표체계들을 제공해오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통계청은 한국사회의 모습과 상태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추적하고 보여줄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국가주요지표, 국민삶의질지표(이하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한국의 사회지표(이하 사회지표)를 발전시켜왔다.

-
- 1) 제목에 ‘지표’가 포함된 것(28,035건) 중 결과 내 검색을 통해 통계와 연관된 것(7,852건)으로 한정하였다(2017년 4월 10일 기준).
 - 2) 프리즘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등재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지표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제시된 수치가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프리즘 홈페이지는 2006년에 구축되었는데, 모든 시점에 수행된 모든 연구보고서가 등재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등재된 보고서도 비공개인 경우가 있어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등재된 연구보고서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단순히 기초연구 수준에서 지표 연구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으며,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평가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 하에 분석한 결과, 2006~2010년에 179건(36.8%), 2011~2015년에 215건(44.1%)이 지표 관련 연구인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4월 5일 기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지표 개발 현상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지표들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진단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기는 하지만, 지표 간 차별적인 특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기존 지표체계의 검토 과정은 지표체계 간 중첩의 원인 행위이다. 기존 지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이슈를 포함하게 되면서 동시대의 다른 지표와의 이론적 수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지표가 필요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한 조직 혹은 한 국가에서 유사한 지표를 굳이 따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표 상호간에 중첩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된다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지표의 개념적, 구조적,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중첩성은 현실을 하나의 틀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교육지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표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공표되는 지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지표와 시산 방법을 적용해 발표된 지표는 다른 정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10여 년 전 이미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은 글로벌 혹은 지역적 차원의 지표개발 과정에서 ‘혼돈(chaos)’을 경험하고 조정을 하고자 고민한 사례가 있다. 한국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표 개발 상황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지표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은 2016년 말에 다양한 국가지표 간 체계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통계청에서 개발한 국가주요지표와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등과의 관계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해 본 바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작성 및 서비스 중인 통계청 지표를 중심으로 이들 간 중첩성을 개념틀, 영역 및 개별 지표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조정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개발 예정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국가지표 개발 방향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³⁾

제2절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지표 확산 과정

1. 주요 개념

지표는 기준 혹은 대표라는 뜻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의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Vries, 2001; Eurostat, 2014b). 본 연구에서는 통계지표에 한정해서

3)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은 SDGs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는 SDG 지표로 번역하였다. 단, SDG 지표는 맥락에 따라 SDG 글로벌지표, SDG 국가지표로 기술하였다.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논의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통계지표의 속성은 경제, 사회 혹은 환경적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양적인 측정도구이며, 시간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화(change)를 보여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GAO, 2011; Eurostat, 2014b). 여기에는 개념(concept),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measures),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측정된 결과물인 구체적인 통계(statistics)를 포함한다(남궁근, 2001). 개념, 측정도구, 통계는 과학적인 논쟁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이다. 개념들에 기반하여 지표가 선정되며, 선정된 지표는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의 통계적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Sebastian, Bauler, and Markku, 2014).⁴⁾

복잡한 사회현상은 단일 지표로 설명 가능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현실을 구성하는 사회와 개인과 관련된 삶의 하위 요소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복잡한 방식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지표들을 개념들에 따라서 하나의 체계로 모으기도 한다. 이를 일컬어 지표체계(indicator system)라고 한다(GAO, 2011; Eurostat, 2014a). 때로는 지표와 지표체계라는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기도 하나, 지표체계는 지표들을 모아놓은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지표체계는 특정 경계 내의 현상과 이행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줄 수 있는 지표 그룹을 모으고 공표하는 체계적인 노력을 뜻한다.

지표체계는 주제지표체계(topical indicator system)와 종합적인 주요지표체계(comprehensive key indicator systems)로 구분될 수도 있다(GAO, 2011). 전자는 건강, 환경, 교육 혹은 교통수단 등 특성의 이슈와 관련된 지표들로 구성된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표체계는 미디어, 전문가, 연구자, 시민 혹은 정책수립자들을 위한 주요한 정보원이다. 사실 경제 지표의 대안으로 1960년대의 사회지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환경이나 문화, 정보 통신 등 특정 영역별로 지표가 더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반대로 종합지표체계는 최근 지표체계 흐름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 영역인 경제·사회·환경 영역의 지표들을 단일의 체계로 종합한 것을 의미한다. 종합지표체계는 특정 구역 내 현황과 진전에 대한 좀 더 완전하고 일반적인 그림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의 영역이 다른 영역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표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개념들을 하나의 틀 안에 조직화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하나의 지표체계를 처음 구축할 때 연구자는 대개 하향식(top-down)으로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지표 항목들을 연역해 내는 방식을 취한다. 즉 지표의 목적을 견고히 하고, 논리적이고 위계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개념지도도를 그리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위계적인 개념지도도는 통상 영역, 하위 영역, 지표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단순히 통계 정보를 모아놓은 의미 없는 관찰의 나열이 아니라 지표 체계가 지향하는 제 측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4) 지표의 기능이 의사소통이나 모니터링, 성과평가, 애드보커시 등일 경우에는 통계적 검증에 좀 더 유연한 편이라는 지적도 있다(Sebastian, Bauler and Markku, 2014).

지표를 조직화하는 유형은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데, 보통 개념적 접근법과 정책적 접근법으로 구분한다(UN, 2009). 개념에 기반한 경우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지표를 조직화하는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이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지표는 유인지표(driving force indicator), 압력지표(pressure indicator), 상태지표(state indicator), 효과지표(impact indicator), 반응지표(response indicator)로 구분된다(Eurostat, 2014b). 정책에 기반한 경우 목표(goal)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를 조직화(goal based framework)하거나, 주요한 이슈나 문제점 위주로 지표를 조직화(issue based framework)하기도 하고, 정부조직과 대응하는 방법으로 지표를 조직화(sectoral based framework)하기도 한다(Statistics NewZealand, 2009).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명쾌하지는 않다. 사실, 프로젝트 관리 영역에서 지표를 유형화하는 방법은 정책에 근거하나, 선행적인 인과 관계를 고려하기도 한다. 이는 정책이 계획, 추적, 평가의 주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1-1]). 이 주기에 대응하는 지표를 투입지표(input), 결과지표(output), 성과지표(outcome), 효과지표(impact)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입지표는 주어진 정책에 활용되는 재정적·인적·물질적 자원을 측정하는 것이며, 결과지표는 정책으로부터 생산된 상품, 서비스 등을 측정한다. 결과에 따른 행동변화의 양상에 따라서 성과지표와 효과지표로 나누는데 전자는 단기적인 혹은 중기적인 변화를, 후자는 좀 더 장기적인 효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Eurostat, 2014b).



출처: Eurostat, 2014b

[그림 1-1] 정책평가 모델

국제통계사회(international statistical community)에서 통계지표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변화가 있었다. 지표에 관한 초기의 문헌, 권고안, 가이드라인 대부분은 통계학자나 과학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이들은 지표의 ‘과학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1990년대 이후 지표에 관한 논의는 정책 지향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지표가 정책 목표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대상을 지향(advocacy)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Vries, 2001). Duncan MacRae Jr.(1986)는 미국 내 부흥했던 사회지표 운동을 보고

사회변동의 분석과 측정에서 과학적 접근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지표 선정 및 평가에서 가치판단과 정책관련성의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책 지표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남궁근, 2001, 재인용).

그렇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도출된 지표의 과학적 특성을 간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유럽통계청(Eurostat)은 정치, 과학 그리고 통계라는 세 영역의 상호작용과 이들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즉, 정치적으로 연관될 경우에도 현재의 이론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의 대상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는 목적과 대상을 채택하고, 통계인은 만족할 만한 품질수준에서 가용 가능한 통계는 무엇인지를 토의해야 하며, 과학자는 과학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이들 중 어느 한 지점이 더 강조된다면, 지표체계의 완성도는 떨어지게 된다. 예컨대 지표작성과정에서 과학이 주도적일 경우에는 공공의 연관성(public relevance)이 무시될 수 있고, 통계가 주도적일 경우에는 데이터의 가용성이 극도로 강조됨으로써 지표 간 사용성이 약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주도적일 경우에는 지표가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 결과 특수한 주제 지표가 발전하고 거시적 수준에서 전반적인 전략이 과연 진전했는가에 대한 평가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Eurostat, 2014b; p.16).

2. UN과 EU의 지표 개발 경험

통계지표가 정책적인 성격을 띠고, 글로벌 수준에서 확산되는 과정에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 초,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GDP 대안지표 개발 노력은 다국적 기관들과 정부에서 이러한 지표들을 적용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2009년 프랑스의 경제성과 사회진보 측정위원회(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주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형평성, 삶의 질,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인 계정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기준을 발표하였다. 2011년 UN은 회원국들이 행복과 지속가능성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계정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각국 정부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응하였다.

그러나, 지표가 제도화되는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1990년대경 UN차원에서 진행된 지표관련 컨퍼런스, 컨벤션, 선언(declaration) 등은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①분야별 핵심지표 세트 권고안, ②새로운 공표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지표의 재포장, ③새로운 데이터 수집 활동이 그것이다. 당시 지표 개발 활동은 파노라마 처럼 나열식으로 진행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였다(UN, 1999). 첫째, 지표가 단순히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유사한 지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정책입안자나 통계청에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지표체계가 개발되고 확산되면서 국가통계청의 보고부담이 증가하였다. 셋째, 개발된 지표체계의 정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정기적인 국가통계 프로그램 업무를 방해(예산 및 인력 등의 제한)하였다. 넷째, 동일하게 보이는 지표에서도 정의와 개념, 자료원천, 방법론의 차이로 다른 수치를 보여주어 이용자 간에 혼란이 증가하였다.

Vries(2001)는 이처럼 무질서하게 지표가 확산된 것을 조정 기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해당 지표체계의 실질적인 목적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까지 외부에서 조정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지표가 채택되는 과정에 통계인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국제통계문제에 관해서도 정부부처와 통계청 사이의 조정, 다양한 기관이 관여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조정 역시 완벽하지 않았다. 특히 후자의 경우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내 위원회(functional commission))에서 중재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EU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 SDI) 체계의 정교화 작업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SDI는 1992년 UN 환경과 발전컨퍼런스(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일명 리우회의)에서 출발하였다. 위 컨퍼런스에서 창설된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는 100개가량의 지표를 정의하고 각국이 이 지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Eurostat는 유럽지역에서 SDI의 사용을 증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2년 협의체를 구축하여 지표 개발과 사용에 대한 국가 간 경험을 수집하고 2005년 유럽지역의 SDI 1차 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2006년에는 EU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2년 주기로 모니터링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Eurostat, 2014a).

이 과정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다차원적인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는 여러 지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용이치 않았다. 이러한 의사소통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표체계를 종합(synthesize)하는 다양한 접근법이 개발되었는데 이 과정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조정되지 않으면서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용어사용에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게다가 국가통계청이나 부처, 공공기관에서 적용한 방법론이 공표 혹은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 간에 의문이 생겼으며, 지식 전수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Eurostat, 2014a).

조정은 개념적 차원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 간 조정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도 불거졌다. 프랑스는 2015년 4월에 웰빙과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당시 EU 차원의 SDI를 고려하지 않았다(Demilly et al., 2015). EU 차원의 전략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개별 국가로부터 동 전략을 수행하도록 하는 합의와 이행을 끌어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사실 지표가 지역 수준에서 조정되면 그 지표가 적용되는 국가 단위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지역 수준과 통합된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 수준에서 합의된 지표체계라고 할지라도 개별 국가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각 국가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지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UN ECOSOC은 지표체계의 확산 과정에서 조정기체의 부재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표 개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원칙을 결의하였다(UN, 2000). 첫째, UN은 모든 국가의 완벽한 참여와 관계된 국제기구의 승인을 얻은 후 지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 둘째 국가공통평가(Common Country Assessment, CCA)⁵⁾ 지표세트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 셋째 국가의 데이터 제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통지표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국제기구 간의 조정문제와 함께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조정문제가 부각되는데, UN ECOSOC의 지표개발 권고안은 이 둘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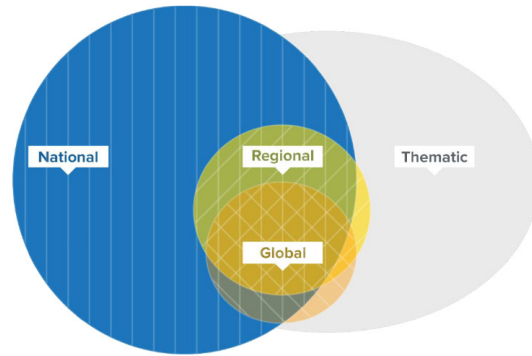
3. SDG 글로벌지표 사례

2015년 9월 UN에서 채택된 SDGs를 점검하는 지표 또한 향후 수년간 다양한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 단위에서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SDGs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는 만큼 지표체계의 전파력은 더욱 강할 것이다. 또한 MDGs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의 이행 진전도를 평가한 지표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만큼(Sachs, 2016),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는 SDGs에 대해 거는 기대도 크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이래로 그간 해당 개념을 구체화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분위기들은 SDGs 지표체계의 확산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SDG 지표는 지표개발 관련 UN ECOSOC 결의안에서 언급한 원칙들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지표는 IAEG-SDGs(Inter Agency Experts Group on SDG Indicators)라는 전문가 그룹이 주도적으로 개발 중인데, 이 그룹은 개별 국가 출신의 통계청 대표가 회원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국제 및 지역기구, 지역위원회 대표가 참관인으로 되어 있다. 연 2회 봄과 가을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온라인 컨설팅을 실시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5) UN은 개발원조프레임워크(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의 일환으로 국가공통평가(Common Country Assessment)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개별 국가 차원의 주요 이슈를 식별하고 개발 상황을 분석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 내에는 공통지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지표 내용은 국제컨퍼런스나 국제협약에 기반한다. 이와 함께 국가 특수성을 반영한 주제지표를 별도의 섹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표 확정 및 통계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표는 연관된 국제기구의 합의과정을 거쳤고, 국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수를 제한하였다. 이 그룹에서 개발한 230여 개의 지표는 글로벌 수준에서의 비교 및 평가를 위한 공통의 핵심지표를 의미하며, 국가는 사회경제적·통계적 발전 정도 그리고 정책적 우선성 등에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표와 통계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출처: SDSN, 2015

[그림 1-2] 글로벌, 국가, 지역, 주제지표와의 관계

글로벌 수준의 공통지표는 [그림 1-2]에서 국가 및 지역, 주제 지표에 의해 보완될 것이다 (UN, 2017). SDG 글로벌지표는 2016년 UN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 UNSC) 위원국 간에 일부의 기술적 개선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는데 합의하였으며, 그 후 1년간 지표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지표 개정안과 함께 지표검토계획을 마련, 2017년 UNSC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되었으며 UN ECOSOC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⁶⁾

그러나, 개별 국가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된 지표체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목표 및 세부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현재 마련된 지표는 각 분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 대한 심층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 주제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지표 개발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IAEG-SDGs에서는 230여 개 지표 각각에 대해 관리 기관(custodian agency)과 협력기관(partner agency)을 두고 있는데,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주제 지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SDGs 재난 지표는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 전략기구(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UNISDR)의 센다이프레임 워크에서 도출된 것인데, 이 프레임워크는 7개의 목표와 3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23개의 지표가 SDG 글로벌지표 5개로 구현되어 있는 식이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SDG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분석하여 회원국의 SDGs 우선순위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이 지표체계는 13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SDG 지표는 102개이며, OECD 회원국의 특성을 반영한 대리지표가 29개이다(OECD, 2017). OECD 보고서에는 SDG 글로벌지표 대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회원국의

6) 이 개정안을 향후 국가차원에서 개발될 지표와 구분하기 위해 SDG 글로벌지표로 부르고자 한다.

입장에서는 UN과 OECD 그리고 개별 국제기구 차원에서 진행되는 무수히 많은 SDG 지표 간에 길을 헤맬 수 있다. 향후 여러 국제기구에서 유사한 동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지역 혹은 국가 수준에서 지표 간 조정 역할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국내 지표 작성 현황

한국은 e-나라지표를 구축한 이래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부처,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에서 앞 다투어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은 2011년 녹색성장지표 구축, 2012년 사회지표 개편, 국가주요지표의 2014년 구축과 2016년 개편, 2014년 삶의 질지표 구축, 2016년 SDG 글로벌지표 검토에 이르고 있다.⁷⁾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및 지표 제공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17년 4월 기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내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32개 기관이며, 이중 별도의 통계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10개 기관이다 (부록의 <부표 1-1> 참조). 대표적으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을 비롯하여, 고용노동 통계(고용노동부), 통계누리(국토교통부), 산업통계포털(산업통상자원부), 환경통계포털(환경부) 등이다. 홈페이지 내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32개 기관 중 지표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절반정도인 18개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주로 해당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지표를 서비스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식의약주요지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경제지표(고용노동부), 식품산업주요지표(농림축산식품부), 문화지표통계(문화체육관광부), 주요산업동향지표(산업통상자원부), 주요환경지표(환경부), 임가경제지표(산림청), 중소기업경영지표(중소기업청) 등이다. 이러한 지표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지만, e-나라지표라고 해서 부처의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 중인 지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e-나라지표는 2005년 8월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정점검 및 국정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통계지표 발굴, 자료작성 및 통계체계도 작성, 전산검색시스템구축 등을 거쳐서 2006년 6월 행정부 내에서 서비스를 시작, 9월에 일반 국민들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하였다.⁸⁾ 2017년 4월 기준으로 총 41개

7) 삶의질지표의 경우는 통계청 이외에도 방정환재단(2009,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농촌경제연구원(2012,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만족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하위집단을 달리하여 동일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 2007년 3월에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되었다. 통계청은 시스템 운영의 주관기관으로 이 시스템의 총괄 및 개선, 지표의 추가 삭제 및 분류체계의 관리와 점검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 운영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교육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해당 부처의 장은 소관

기관에서 740개의 개별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표를 제공하고 있는 부처는 국토교통부 62개이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42개, 기획재정부 41개이다. 통계청은 현재 33개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표 1-1>).

〈표 1-1〉 e-나라지표 제공 중인 기관 및 지표 수

기관분류	담당기관	빈도	기관분류	담당기관	빈도
대통령직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	4	부17개 기관	여성가족부	27
국무총리직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	7		외교부	14
	국가보훈처	17		통일부	7
	국민권익위원회	5		해양수산부	23
	국민안전처	16		행정자치부	31
	금융위원회	30		환경부	24
	식품의약품안전처	10		청13개 기관	검찰청
	인사혁신처	7	경찰청		13
부17개 기관	고용노동부	33	관세청		7
	교육부	36	국세청		21
	국방부	14	기상청		9
	국토교통부	62	문화재청		8
	기획재정부	41	방위사업청		3
	농림축산식품부	14	병무청	5	
	문화체육관광부	28	산림청	12	
	미래창조과학부	30	조달청	8	
	법무부	27	중소기업청	12	
	보건복지부	42	통계청	33	
	산업통상자원부	35	특허청	6	

지표통계정보를 별도로 서비스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해당 기관과 관련된 지표보고서 및 관련 기사가 홈페이지에 다수 게재되어 있다(31개 기관).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지수(국가인권위원회), 지역안전지표(국민안전처), 고용성장지수(고용노동부),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국토교통부), 국민의 문화여가수준지표(문화체육관광부),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지표 및 지수(법무부), 노후준비지표(보건복지부), 국가성평등지표(여성가족부), 물환경건전성지표(해양수산부), 지역문화지표(행정자치부), 도시설계를 위한 환경지표(환경부), 한국사회의 안전지표(경찰청), 관람행복지수(문화재청), 과학기술환경지표(중소기업청) 등이다. 이러한 지표체계 이외에 개별 지표에 대한 작성도 활발히 진행

지표 전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괄담당자 1인과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기관 지표의 작성 및 관리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이만호 외, 2012).

중인데, 이는 2007년 도입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지표를 구비하고 개발 노력을 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정책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통계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 목적이다(이민호 외, 2012). 이 제도에 근거하여 정부 부처는 정책수립 및 집행, 평가와 관련하여 지표를 작성하여 활용 중이다.

제4절 통계청 주요 지표체계 비교분석

1. 분석대상 지표체계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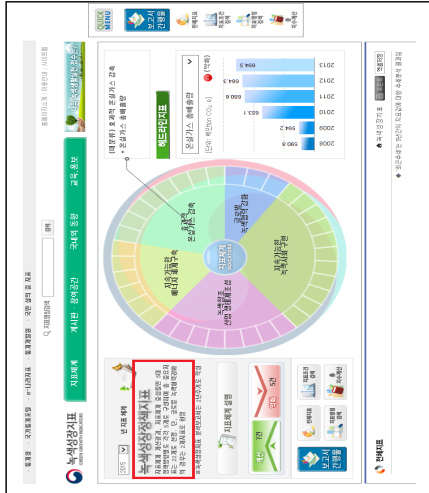
통계청은 중앙통계기관으로 국정통계모니터링시스템을 근간으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등을 작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표들은 국가통계포털(kosis.kr) 및 지표포털(index.go.kr)에서 서비스 중이다. 지표체계구축 순서대로 보면 사회지표(1979), e-나라지표(2006), 녹색성장지표(2011), 삶의질지표(2014), 국가주요지표(2014)이다. 국가주요지표와 e-나라지표 그리고 녹색성장지표와 삶의질지표는 지표포털에, 사회지표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온라인간행물로 제공 중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부에서 구축하였으나, 통계청 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이며 SDG 지표와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그림 1-3]에 함께 제시하였다.

SDG 지표는 글로벌 수준에서 확정된 것으로, 아직 국가특수성이 반영된 국가지표 체계는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조만간 SDG 국가지표가 개발될 예정인데, 이 지표는 범부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국가 단위의 지표체계 개발 및 자료수집, 품질관리, 자료제출의 주체로 통계청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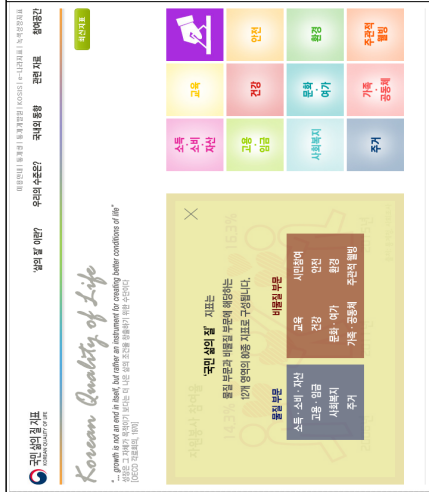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지표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의 산물이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21)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지표체계를 작성하여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UNCS(Commis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마련(1993)하고 개정(2001, 2006)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사회·환경·경제 3개 분야의 77개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개정을 거쳐 현재의 84개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운영 중이다. SDGs 채택 이후 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통합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9)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청이 SDGs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및 관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OECD, 2016).

녹색성장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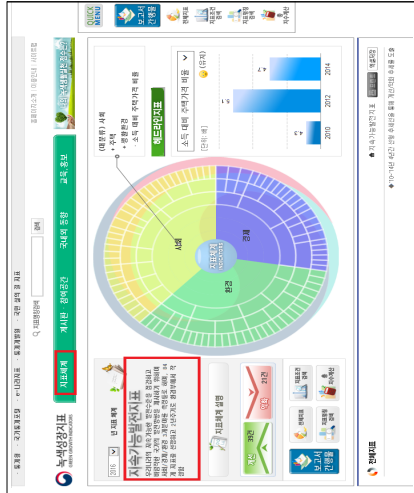
삶의 질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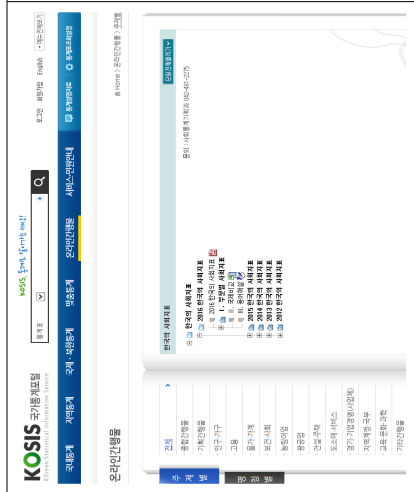
국가주요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사회지표



e-나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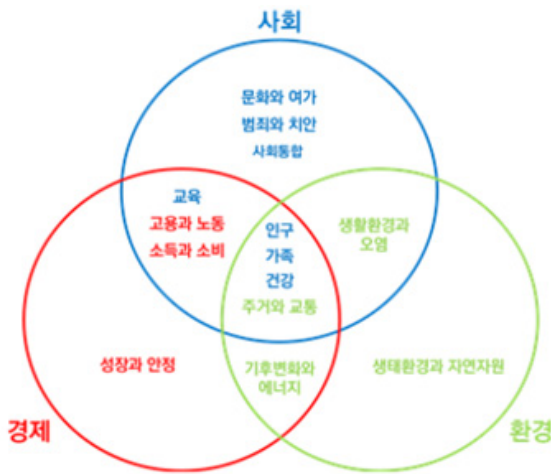


[그림 1-3] 지표체계 서비스 현황

SDG 지표와의 통합가능성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지표가 현재 통계청 내 사이트에서 함께 서비스 중이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지표체계는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UN SDG 글로벌지표이다.

가. 국가주요지표

국가주요지표는 2013년에 개발 작업에 착수하여 201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 개편하였다.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집약된 통계이다. 2006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e-나라지표가 정부 부처 중심의 성과지표인 반면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전체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고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림 1-4] 국가주요지표의 개념틀

[그림 1-4]는 국가주요지표의 개념틀을 보여주는데, 국가주요지표가 국가발전·국민 삶의 질·지속가능성에 입각하여 경제·사회·환경 부문으로 구성되고 이들의 상호영향을 고려한 교차모델임을 알 수 있다(이재열 외, 2016). 경제·사회·환경 부문 각각의 고유 가치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성 그리고 환경적 책임성으로 구성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은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이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통합성은 개인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극대화하되 동시에 사회의 응집성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지로 평가한다. 환경적 책임성은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얼마나 잘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세 부문은 각각 고유영역과 다른 부문과의 교차영역으로 구성된다. <표 1-2>에서 보듯 경제부 부문은 성장과 안정, 사회부 부문은 문화와 여가, 범죄와 치안, 사회통합, 환경부 부문은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을 고유영역으로 한다. 경제와 사회 교차영역은 교육,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경제와 환경 교차영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사회와 환경 교차영역은 생활 환경과 오염이다. 한편 경제·사회·환경의 3개 부문이 모두 교차하는 영역으로는 인구, 가족, 건강, 주거와 교통의 4개 영역이다. 하위영역은 총 50개이며 이 영역은 103개의 주요 지표와 81개의 보조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지표 선정기준은 개념적 적실성, 결과(output) 지표, 비교가능성, 정책적 적합성, 민감성, 자료의 정확성과 접근성이다(석현호 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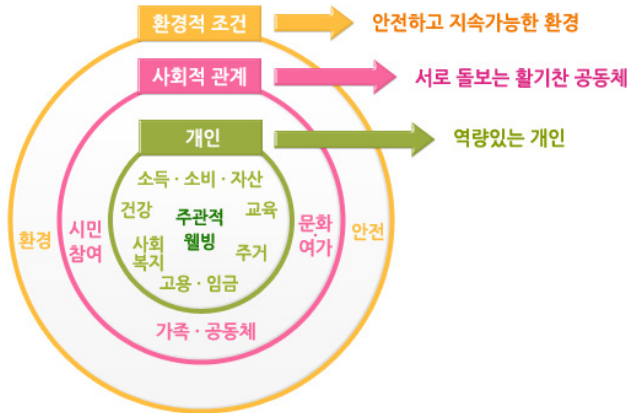
〈표 1-2〉 국가주요지표의 구조

부문	영역	하위영역수	지표수		
			주요	보조	국제비교
경제	성장과 안정	6	12	19	14
	문화와 여가	3	6	3	4
사회	범죄와 치안	2	6	2	3
	사회통합	4	11	5	9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5	8	2	6
경제사회	교육	3	7	2	6
	고용과 노동	4	10	13	11
	소득과 소비	4	5	8	8
경제·환경	기후변화와 에너지	4	5	3	5
사회·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4	7	8	4
경제·사회·환경	인구	2	2	5	5
	가족	2	5	3	5
	건강	3	9	3	9
	주거와 교통	4	10	5	7
합계		50	103	81	96

나. 삶의질지표

삶의질지표는 2011년 개발하고,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로 삶의 질 지표정의 위원회를 두고 여러 차례 개편과 수정을 거쳐, 2017년에 삶의 질 학회와 공동으로 국민 삶의 질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르고 있다. 삶의질지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 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지표는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전반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념적 갈등, 상대적 빈곤 등 다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여, 기존의 경제 성장 중심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적인 관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개발되었다. 즉 삶의질지표는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삶의질지표에서 ‘삶의 질’이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된다. 여기서는 개인의 삶의 질과 함께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의 질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한준 외, 2011).



[그림 1-5] 삶의질지표 개념들

[그림 1-5]는 지표의 작성 목적과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구성된 삶의질지표의 개념들을 보여준다. 국민 삶의 질은 환경적 조건, 사회적 관계, 개인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며, 삶의 질의 최종적 결과는 주관적 웰빙이다. 개인 수준에서는 역량있는 개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고, 경제적 여유와 복지 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 수준에서의 목표는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사회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시민참여가 활발하고, 여가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그리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향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한준 외, 2011)(<표 1-3>).

<표 1-3> 삶의질지표의 목표와 세부내용

차원	목표	세부내용
개인	역량(capability)있는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경제적 여유와 복지혜택을 누리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
사회적 관계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시민참여가 활발하고 여가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동체
환경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삶의질지표는 12개 영역, 81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표 1-4>).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웰빙 등이며 각 영역은 3~9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선정기준은 자료의 질, 적절성, 중립성이다. 공식통계의 사용·전체인구의 포괄·시계열 확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자료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액면 타당도가 높아야 하며, 투입보다는 성과를 측정해야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개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며, 국내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립성은 정치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한준 외, 2011). 2011년 작성 당시 83개의 지표체제로 출발하였으나, 2013년 외부 전문가 의견 검토를 통해 삶의 질과 관련이 높은 지표를 추가로 보완하고, 삶의 질과 관련성이 낮거나 투입지표, 의미없는 지표 등 일부 지표를 삭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에도 지표검토위원회를 통하여 지표명 변경, 산식변경 또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지표의 대체지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2016년 12월 기준으로 81개의 지표가 되었다. 한편, 12개 영역은 물질 부문과 비물질 부문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표 1-4〉 삶의질지표 구조

영역		지표		
		객관지표	주관지표	합계
물질 부문	소득·소비·자산	6	2	8
	고용·임금	5	1	6
	사회복지	3	-	3
	주거	4	1	5
비물질 부문	건강	7	2	9
	교육	7	2	9
	문화·여가	4	2	6
	가족·공동체	6	2	8
	시민참여	2	5	7
	안전	7	2	9
	환경	6	2	8
	주관적웰빙	-	3	3
합계		57	24	81

다. 녹색성장지표

녹색성장지표는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녹색성장지표의 개념틀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한다. 지표체계의 출발은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대 분야 및 10대 정책방향이다. 정책연관성, 자료가용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시 30여 개 핵심지표로 구성되었으나(김호 외, 2010), 2015년에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5대 정책방향을 기준으로 기존 지표체계를 개선하였다.

녹색성장지표의 5대 정책방향은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이다. 이 5대 정책방향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나 에너지소비 증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으로 인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다. 지표는 이에 근거하여 22개의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로 구성되어 있다(최종희·김호, 2015).

〈표 1-5〉 녹색성장지표 구조

5대 정책방향	주요지표 수	보조지표 수	합계
1.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5	4	9
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구축	5	2	7
3.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5	5	10
4.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5	7	12
5.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2	1	3
합계	22	19	41

라. e-나라지표

e-나라지표는 국정전반에 걸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온라인으로 보고하기 시작한 지표체계이다.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성과측정을 위해 설정한 지표로 공급자 중심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유형에 따라서 지표를 분류 및 관리하고 있다. 현재 41개 기관에서 740개의 지표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표체계의 최종 단계인 각 개별 지표마다 지표를 관리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이 주기적으로 지표를 업데이트한다. 국가주요지표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국가주요지표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서비스 중이다. 현재, 경제·사회·환경 3개 분야에 걸쳐 14개 영역, 57개 하위영역, 740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표 1-6〉 e-나라지표 구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수
경제	성장과 안정	건전성, 글로벌화, 기타, 생산성, 성장, 성장가능성, 소득불평등	226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자원, 문화여가활동, 미디어이용, 기타	38
	범죄와 치안	범죄, 치안, 기타	86
	사회통합	사회보장, 사회참여, 신뢰, 기타	84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농지, 산림, 생물다양성, 수자원, 해양수산	25
경제·사회	고용과 노동	고용,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 임금	49
	교육	교육과정, 교육기회, 교육효과, 기타	36
	소득과 소비	물가, 소득, 소비, 자산, 기타	17
사회·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수질, 폐기물과 유해물질, 환경개선 노력만족도	23
경제·환경	기후변화와 에너지	온실가스, 자연재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생산과 소비	22
경제·사회·환경	가족	가구형성, 가족관계	29
	건강	건강상태, 건강행태, 보건의료서비스	20
	인구	인구구조, 인구변화, 기타	23
	주거와 교통	교통안전, 교통인프라, 주거비, 주거의 질	62
합계	14	57	740

마. 사회지표

사회지표는 사회변화의 양상을 다양한 영역에서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지표체계이다. 이 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통계자료를 재분류하거나 가공하여 작성하며,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개편(1995, 2004, 2012)이 실시되었는데, 가장 최근 개편을 통해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개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로 진화하였다. 2012년 개편 당시 사회지표는 인구,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문화와 여가, 사회통합 등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은 다시 4-7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석현호 외, 2012). 개편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2016년 기준으로 11개 영역, 54개 하위영역, 277개 지표가 되었다. 지표는 해당영역 지표로서의 타당성, 신뢰성 여부에 따라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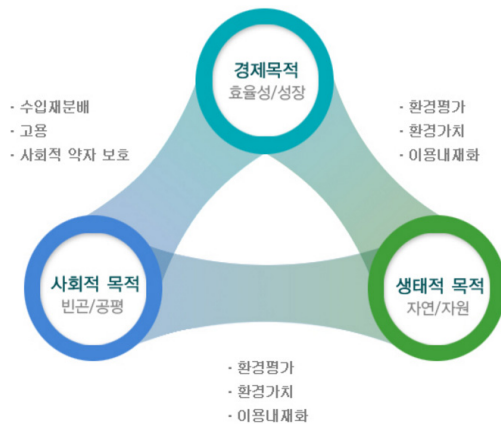
〈표 1-7〉 사회지표 구조

영역	하위영역	지표수	영역	하위영역	지표수
인구	총인구	1	환경	오염물질배출	7
	인구구성	4		자연자원 이용	5
	출생	1		생활환경	9
	사망	2		생태환경	5
	인구 분포와 이동	4		환경관리	5
건강	건강상태	6	안전	자연재해	2
	건강결정요인	3		안전사고	8
	보건의료시스템	7		안전의식과 평가	4
가구 와 가족	가족및가구 구성	8		범죄	8
	가족형성	9		형사사법 활동	10
	가족생활	5	문화 와 여가	문화와 여가생활의 기반	8
	가족규범	4		문화예술활동	5
	교육기회	11		여가체육활동	8
교육	교육의 조건과 과정	7	미디어 활용	4	
	교육효과	9	사회 통합	정치참여	7
	인적자원	6		사회참여	5
노동	취약계층 취업현황	4		역능성	9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	10		사회적 소통	2
	노사관계	1		신뢰	3
소득 과소 비	소득	10		관용성	2
	소득분배	3		사회보장	7
	소비와 물가	7	국제 비교 지표	인구	6
	저축 및 투자	2		건강	2
조세와 재정	2	교육		4	
주거 와 교통	주택공급·관리	5		노동	3
	주택시장	5		소득과 소비	4
	주거상황	4		주거와 교통	2
	주거의 질	4		환경	2
	교통시설	3		안전	3
	교통체계	5		문화와 여가	2
	교통비용	4		사회통합	6
	교통복지	1			
교통환경	3				

바. 지속가능발전지표

2006년 10월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한국의 실정에 맞는 77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 제시하였다. [그림 1-6]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념들을 보여주는데, 이 지표체계는 경제적 목적으로 효율성과 성장을 지향하고, 사회적 목적으로는 빈곤 타파와 공평이 추구된다. 그리고 생태적 목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과 자원의 보존이 중요시 된다. 그동안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지표가 개편되었는데, 가장 최근 개편은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년)』에 따른 것이다. 이 기본계획은 UN SDGs를 국내에 도입하고,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전문가 진단에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을 반영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개편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표 1-8>과 같이 분야(3개), 영역(14개), 항목(33개), 지표(84개)의 4계층으로 구성되었다(환경부, 2016).¹⁰⁾

지속가능발전지표는 SDG 글로벌 지표와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기존에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운영하고 있던 국가들뿐 아니라 UN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 UNEP), OECD, Eurostat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글로벌 지표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환경부와 통계청이 협업하여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SDG 글로벌 지표의 활용가능성을 분석 중에 있다(환경부, 2016).



[그림 1-6]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목적과 개념들

10)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분야-영역-항목-지표라는 틀의 기준이 된 것은 2001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이다. 당시 지표체계는 4개 분야(사회, 환경, 경제, 제도), 15개 주제(theme), 38개 세부주제(sub-theme), 57개 핵심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도 이를 따라 영역, 항목, 지표로 구성하였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14개 영역은 UNCSD 지표체계의 제도 분야를 제외한 13개 주제에 ‘정보화 등’ 영역만 추가한 것이다. 2000년 UN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채택되면서 UNCSD는 MDGs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14개 주제, 44개 세부주제, 96개 지표(50개 핵심지표)로 갱신된 지속가능발전지표체계를 발표하였다. 이 지표체계에서는 사회, 환경, 경제, 제도라는 이전의 분야 구분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다(환경부, 2016).

〈표 1-8〉 지속가능발전지표 구조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수
사회	형평성	빈곤	5
		노동	4
		남녀평등	3
	건강	영양상태	1
		사망률	2
		수명	1
		식수	1
		건강관리	3
	교육	교육수준	3
	주택	생활환경	3
재해/안전	범죄, 재해	3	
인구	인구변화	3	
환경	대기	기후변화	3
		오존층	1
		대기질	1
	토지	농업	5
		산림	3
		도시화	2
	해양/연안	연안지역	4
		어업	2
	담수	수량	3
		수질	2
생물다양성	생태계	3	
경제	경제구조	경제이행	6
		무역	1
		재정상태	2
		대외원조	1
	소비/생산	에너지사용	3
		폐기물관리	4
		교통	3
	정보화 등	정보접근	1
		정보인프라	1
		과학기술	1
합계	14	33	84

사. UN SDG 글로벌지표

UN은 2015년 9월 제70차 총회에서 2001년부터 15년간 지속되어 온 MDGs 시대의 종언과 동시에 새로운 15년을 목표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여기에서 채택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가 SDGs이다. 그리고 SDGs는 241개 글로벌지표로 평가된다.¹¹⁾ 새롭게 채택된 17개의 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 글로벌 거버넌스 부문에서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1-9〉 SDG 글로벌지표체계 구조

목표	세부목표 수	지표 수
1. 빈곤종식	7	12
2. 기아종식, 식량안보와 농업 증진	8	14
3. 보건 및 웰빙 증진	13	26
4. 교육보장, 평생교육기회 증진	10	11
5. 성평등 달성, 여성역량 강화	9	14
6.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과 관리	8	11
7. 에너지접근 보장	5	6
8.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증진	12	17
9. 인프라 구축, 산업화와 혁신 증진	8	12
10. 불평등 감소	10	11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0	15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확립	11	13
13. 기후변화 대응	5	7
14. 해양 생태계 보호	10	10
15. 육상 생태계 보호	12	14
16. 평화와 정의, 제도 구축	12	23
17.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9	25
합계	169	241

11) 2017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일부 지표의 수정보완이 있었으며 지표수도 244개(중복 제외 시 232개)로 변경되었으나, 본 연구 진행 당시에는 2016년 3월 기준 자료가 적용되었다.

SDGs의 17개 목표는 분석적 목적으로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조직화하기도 한다. 사회발전 영역은 목표 1부터 목표 6까지로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경제성장 영역은 목표 8부터 목표 11까지로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목표 7, 12, 13, 14, 15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이다. 현재 극심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로 목살을 앓는 지구를 보호하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을 막아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여기에 포함된다. 한편, 목표 1부터 15까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라면 목표 16과 17은 앞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표 16은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효과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며, 목표 17은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엄격한 것이 아니며 기관이나 연구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그림 1-7] SDGs 작성목적과 개념틀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SDGs를 5P 개념으로 재구조화하기도 한다. 5P는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의 영문 앞자를 의미한다. 이 5P는 새로운 개발 의제의 기본 정신이자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그림 1-7]). 사람에는 목표1~5, 지구환경에는 목표6, 목표12~15, 번영에는 목표7~11, 평화에는 목표16, 파트너십에는 목표17이 해당된다.

SDG 글로벌지표는 데이터 가용성과 국제적 표준적인 방법론에 따라서 지표를 세 개의 층위로 구분하고 있다. 티어1(Tier1)은 개념이 명확하고, 방법론 및 표준이 존재하며,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티어2는 개념이 명확하고, 방법론 및 표준이 존재하나, 데이터 사용에 한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티어3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과 표준이 부재하는 경우이다. 2017년 6월 기준 IAEG-SDGs 티어 분류 결과를 보면, 티어1과 2는 65%, 티어3은 35%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지표체계 간 중첩성 분석

가. 작성목적 및 개념틀 비교

지표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동시대에 구축된 지표는 유사한 개념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표 1-10>은 각 지표체계의 작성목적과 구조, 개편 시기 등과 함께 핵심개념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 지표체계들이 지속가능성, 삶의 질, 발전 등과 같은 개념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오래 전에 만들어진 사회지표 또한 2012년에 개편되면서 삶의 질에 사회의 질과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진화하였다. 그리고 이 개념들은 경제·사회·환경의 세 부문을 통합하고 부문 내 하위영역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물론 경제·사회·환경 중 강조하는 측면은 지표체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다. 이 지표체계들은 과거의 성장 위주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불평등,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공통점 하에 사회나 환경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사회지표의 경우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 및 문화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함을 밝히고 있으며, 삶의질지표 또한 삶의질이 개인의 역량과 사회적 관계, 환경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경제·사회·환경 세 부문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세 부문의 균형적인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주요지표는 사회적인 측면에,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적인 측면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 SDG 글로벌지표 역시 지속가능발전은 경제변영, 사회통합, 환경보존을 세 핵심 축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각각의 부문은 17개 목표 안에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녹색성장지표의 경우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나 녹색성장이라는 특정 주제에 천착하고 있다. 한편, e-나라지표는 현재 국가주요지표와 동일한 개념틀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표체계가 구축될 당시에 개념틀에 따라 지표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집행과정에서 활용하는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표체계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개념틀에 따르면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지표는 국가주요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그리고 SDG 글로벌지표이다.

작성목적은 보더라도 국가주요지표의 포괄범위가 가장 넓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지표는 국가발전, 국민의 삶의질,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국민복리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국가주요지표와 삶의질지표를 비교해 본다면, 삶의질지표는 삶의 질이라는 주요 부분을 특화하여 작성된 특수 주제지표의 성격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지속가능발전지표 역시 경제, 사회, 환경의 세 분야를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으나, 환경과 관련된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녹색성장지표는 작성목적, 이론적 배경, 지표의 구조 모두에서 중첩의 정도가 가장 약할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이라는 일관된 지향 아래

〈표 1-10〉 분석대상 지표체계 구조 비교

구분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SDG 글로벌지표
시작	2014	2014	2011	2006	1979	2006	2016
작성목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표를 제공하여 국가 발전, 국민 삶의 질,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국민 복리에 기여	국민 삶의 질과 사회발전에 대한 정책 기초 자료 제공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우리나라 현 위치를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현 정부의 성과를 과거 정부와 비교하여 평가	국민 삶의 질과 복지정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파악	환경친화적 성장동력 육성과 경제, 사회의 동반성장을 융합하는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사람, 지구 및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
개편시점	2016	2016	2015	2013	1995, 2004, 2012	2016	2017
핵심개념	국가발전, 삶의 질, 지속가능성	삶의 질, 사회의 질, 주관적 웰빙	녹색성장	정책성과평가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5P
작성주기	1년	1년	2년	수시	1년	2년	-
지표체구조	계층1 (경제, 사회, 환경)	12개 영역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주거 등)	5개 정책방향	3개 부문 (경제, 사회, 환경)	11개영역 (인구, 교육, 노동, 환경 등)	3개 분야 (경제, 사회, 환경)	17개 목표 (빈곤중식 등)
	계층2	-	-	14개 영역	-	14개 영역	169개 세부목표
	계층3	-	-	57개 하위영역	54개 하위영역	33개 항목	-
	계층4	주요지표 103개 보조지표 81개 국제비교 96개	81개 지표	주요지표 22개 보조지표 19개	740개 지표	277개 지표	232개 지표
강조분야	사회>환경>경제	사회>환경	경제	경제	사회>경제	환경>사회>경제	사회>환경>경제
국제비교	0	x	x	x	0	x	0

작성된 이점을 충분히 살려 지표의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녹색성장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목적과 이론적 배경에서 공통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 중심으로 경제 및 사회와 관련된 주제들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국가주요지표와 지표 구조의 중첩성이 발생하고 있었다. 글로벌 수준의 지표체계인 SDGs는 지속가능성이나 삶의 질 이외에도 글로벌 협력을 주요한 개념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SDGs가 일국 중심의 지표체계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개념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것은 다른 지표체계와 차별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e-나라지표는 그 출발이 정부 정책수립 및 성과평가의 근거이다 보니 개념들이 있다기보다는 각 부처의 정책을 반영하는 지표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과정에서 SDG 글로벌지표는 영역 및 하위영역 수준에서의 중첩성만을, e-나라지표는 지표수준에서의 중첩성만을 비교하고자 한다.

나. 영역 및 하위영역 수준

이제 지표체계들의 영역이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영역의 중첩성은 일차적으로 개념 일치 여부를, 이차적으로 개별 지표 수준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였다. 두 지표체계 모두에서 교육을 측정한다고 하면 개별 지표 수준의 중첩여부와 무관하게 영역이 중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외적으로 사회지표 ‘환경’ 영역의 경우, 국가주요지표의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 개념과 모두 일치하는 만큼, 어느 영역과 더 일치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세 영역 모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영역 간 개념 일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지표 수준에서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였다. 개별 지표 수준에서의 중첩이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영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녹색성장지표의 ‘효과적 온실가스감축’ 영역의 2개 지표는 각각 국가주요지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과 ‘주거와 교통’ 영역 지표와 일치한다. 이 경우 ‘(하위)영역’의 개념적 수준에서 생각할 때 ‘효과적 온실가스감축’이라는 개념은 국가주요지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의 개념 및 측정목적과 더 일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일, 효과적 온실가스감축 영역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주거와 교통 영역에 모두 속한다고 판단할 경우 지표수준의 중첩성 판단과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그림 1-8]).

주의할 점은 이러한 방식으로 영역 및 하위영역의 중첩성을 검토할 경우 정확히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표체계들 간

중첩성은 매우 높게 분석될 가능성이 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 영역 및 하위 영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간 중첩성을 가지고 지표체계들이 서로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며, 목적이나 개별 지표 수준의 중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녹색성장지표	국가주요지표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효과적 온실가스감축></p> <p style="margin: 5px 0;">온실가스 총배출량</p> <p style="margin: 5px 0;">산림온실가스흡수량</p> <p style="margin: 5px 0;">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p> <p style="margin: 5px 0;">전기차 보급률</p> <p style="margin: 5px 0;">대중교통수송분담률</p> <p style="margin: 5px 0;">지하철·철도수송분담률 통근용자전거 이용률</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기후변화와 에너지></p> <p style="margin: 5px 0;">온실가스배출량</p> <p style="margin: 5px 0;">자연재해피해액</p> <p style="margin: 5px 0;">자연재해발생횟수</p> <p style="margin: 5px 0;">석탄화력발전비율</p> <p style="margin: 5px 0;">전력소비량(1인당)</p> <p style="margin: 5px 0;">사용후핵연료발생량</p> <p style="margin: 5px 0;">신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비율</p> <p style="margin: 5px 0;">신재생가능에너지공급량</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주거와 교통></p> <p style="margin: 5px 0;">주택매매가격변동률</p> <p style="margin: 5px 0;">주택전세가격변동률</p> <p style="margin: 5px 0;">주택월세가격변동률</p> <p style="margin: 5px 0;">주택임대료 비율(소득대비)</p> <p style="margin: 5px 0;">주택수 (인구 1,000명당)</p> <p style="margin: 5px 0;">주거면적 (1인당)</p> <p style="margin: 5px 0;">소득계층별 주거면적 (1인당)</p> <p style="margin: 5px 0;">주거환경만족도</p> <p style="margin: 5px 0;">주택만족도</p> <p style="margin: 5px 0;">대중교통수송분담률</p> <p style="margin: 5px 0;">자랑통행속도</p> <p style="margin: 5px 0;">통근시간</p> <p style="margin: 5px 0;">통학시간</p> <p style="margin: 5px 0;">장시간통근통학인구비율</p>

[그림 1-8] 영역 중첩성 판단 방식의 예

영역 중첩성은 개념적으로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국가주요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SDG 국가지표의 개발을 고려하여 SDG 글로벌지표를 기준으로 한 영역 중첩성 분석을 추가하였다.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기준으로 공통성을 들여다 볼 수 있겠지만 삶의질지표 및 사회지표는 국가주요 지표체계와 영역 구성에서 매우 유사하고, 녹색성장지표는 정책목표의 수가 5개여서 비교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표를 기준으로 모두 비교하는 것은 지면낭비라고 판단하였다.

<표 1-11>은 국가주요지표를 중심으로 한 영역 중첩성 결과이다. 예상 대로, 삶의질 지표와 사회지표 간에 영역 중첩성이 상당히 높음을 드러낸다. 용어상의 차이는 약간 있으나 대략적으로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가족, 건강, 교육, 문화와 여가, 범죄와 치안, 사회통합, 주거와 교통,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이 중첩된다. 지속가능발전지표와 SDG 글로벌지표 중에서도 이들 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은 있다. 성장과 안정, 고용과 노동, 건강, 교육, 범죄와 치안, 생활환경과 오염, 생활환경과 자연 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이 그러하다. 녹색성장지표의 경우 생활환경과 오염,

〈표 1-11〉 국가주요지표 기준_영역 중첩성 분석

국가주요지표 영역	삶의질지표 영역	녹색성장지표 5대정책방향	사회지표 영역	지속가능발전지표 중분류	SDG 글로벌지표 17대 목표
성장과 안정				경제구조 ·행평성(빈곤)	·빈곤종식 ·경제성장촉진 및 일자리 증진 ·인프라구축, 산업화와 혁신증진 ·경제성장촉진 및 일자리 증진
고용과 노동	·고용임금		·노동	·행평성(노동)	
소득과 소비	·소득소비자산		·소득과소비	·인구	
인구			·인구		
가족	·가족공동체		·가구와 가족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강화
건강	·건강		·건강	·건강	·보건 및 웰빙증진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보장
문화와 여가	·문화여가		·문화와 여가		
범죄와 치안	·안전		·안전	·재해안전	·평화와 정의, 제도 구축
사회통합	·시민참여		·사회통합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강화
주거와 교통	·가족공동체			·주택	·보건 및 웰빙 증진
	·주거		·주거와 교통		
생활환경과 오염	·환경	·지속가능한 녹색사회구현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환경	·담수 ·대기 ·소비생산(폐기물)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확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환경	·생물다양성 ·담수 ·해양연안	·육상생태계 보호
기후변화와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효과적 온실가스감축	·환경	·대기(기후변화) ·재해안전 ·소비생산(에너지사용)	·에너지 접근 보장 ·기후변화 대응
[잔여범주]	·주관적 웰빙				
			·토지		·기아종식, 식량안보와 농업증진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향상과 편미
					·불평등 감소
					·해양생태계 보호
		·글로벌 녹색협력		·정보화 등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표 1-12〉 SDG 글로벌지표 기준_영역 중첩성 분석

SDGs	국가주요지표 영역	삶의질지표 영역	녹색성장지표 5대정책방향	사회지표 영역	지속가능발전지표 중분류
17대 목표					
1. 빈곤종식	·성장과 안정	·사회복지		·소득과 소비 ·환경	·행평성(빈곤)
2. 기아종식, 식량안보와 농업증진	·건강	·건강		·건강	·건강
3. 보건 및 웰빙증진	·교육	·교육		·교육	·교육
4. 교육보장, 평생교육기회 증진	·사회통합(사회참여) ·가족(가사노동)			·사회통합	·행평성(남녀평등)
5. 성평등 달성, 여성 역량강화					·담수
6.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과 관리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 계 구축	·환경	·소비생산(에너지사용)
7. 에너지 접근 보장	·고용과 노동	·고용·임금		·노동	·경제구조
8.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증진	·성장과 안정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정보화 등(과학기술)
9. 인프라 구축, 산업화와 혁신 증진	·고용과 노동				·행평성(빈곤)
10. 불평등 감소	·생활환경과 오염 (대기)	·주거		·주거와 교통	·주택, ·대기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생활환경과 오염 (폐기물과 유해물질)	·환경	·지속가능한 녹색사회구현	·환경	·소비생산(폐기물관리)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확립	·기후변화와 에너지				
13.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녹색사회구현	·환경	·해양연안
14. 해양 생태계 보호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안전	·지속가능한 녹색사회구현	·환경	·생물다양성 ·토지(산림)
15. 육상 생태계 보호	·범죄와 치안			·안전	·재해안전
16. 평화와 정의, 제도 구축		·문화여가	·글로벌 녹색협력강화		·경제구조(대외원조) ·정보화 등(과학기술)
17.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너십 강화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인구 ·주거와 교통	·문화여가 ·소득소비자산 ·시민참여 ·가족공동체 ·주관적 웰빙		·문화와 여가 ·인구 ·가구와 가족	
[잔여범주]					

기후변화와 에너지라는 두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녹색성장지표가 경제 및 사회보다 환경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지표를 제외한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나머지 지표체계 간에는 위와 같은 영역 중첩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별되는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성장과 안정 영역은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에서 비어 있는데, 이는 미시와 거시를 통합하고 있는 국가주요지표를 미시적 수준의 삶의질지표와 개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회지표를 구분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반면에 지속가능발전지표와 SDG 글로벌지표는 성장과 안정 영역이 채워져 있다. 특히 SDG 글로벌지표체계의 세 목표가 성장과 안정 영역에 관계된다. 이는 두 지표체계 모두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발전’의 관점에서 논의가 출발한 것으로 필연적으로 거대담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를 공통영역으로 해서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사회지표는 소득과 소비를, 지속가능발전지표와 SDG 글로벌지표는 소비와 생산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의 세 지표체계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뒤의 두 지표체계는 환경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경우 그 하위영역이 에너지 사용, 폐기물관리, 교통 영역으로 분화되면서 국가주요지표의 생활환경과 오염 및 기후변화와 에너지 영역과, SDG 글로벌지표의 경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확립이라는 영역은 마찬가지로 생활환경과 오염 영역과 중첩된다.

셋째, 문화와 여가, 가족 등은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사회지표에서 두드러진 영역이다. 문화와 여가에 포함된 ‘인터넷이용률’ 지표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정보화 영역과 SDGs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에서 발견되기는 하나, 단일의 지표 중첩이 영역의 중첩으로 해석되기에는 영역 수준에서의 개념 간극이 너무 크다. 가족 영역의 대표 지표인 가사노동분담시간은 SDGs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구축된 국가주요지표나 삶의질지표, 사회지표는 가사노동분담시간을 가족이라는 테두리 하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수준의 SDGs에서는 여성역량강화를 통한 성평등 달성이라는 점에서 다루고 있어 양 지표체계 간 관점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넷째, 국가주요지표의 범죄와 치안은 다른 지표체계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에서는 안전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안전 영역에는 범죄와 함께 사고라는 개념이 포함된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서는 재해안전으로 분류되어 범죄, 자연재해, 산업재해를 포괄하고 있다. SDGs는 범죄를 평화와 정의, 제도 구축으로 명명된 목표16에서 다루고 있는데, 범죄, 사고, 재해라는 결과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구축의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다섯째, 환경 영역에 대한 세분화 정도가 지표체계 간에 차이가 있다.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와 달리, 국가주요지표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SDGs 글로벌지표로 갈수록 세부적으로 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주요지표는 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세 개 영역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대기, 토지, 해양/연안, 담수, 생물다양성의 5개 영역으로, 그리고 SDGs 글로벌지표는 환경 영역에 대한 명확한 경계는 없으나, 목표6, 7, 11~15의 7개 영역이 다른 지표체계의 환경 영역과 중첩되어 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SDG 글로벌지표가 다른 지표체계에 비해 ‘환경’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섯째, 국가주요지표의 잔여범주로 글로벌 협력과 관련된 것이 있다. 이 영역은 삶의질 및 사회지표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다. SDG 글로벌지표는 기본적으로 UN의 프로그램에서 출발하고 있다 보니 글로벌 수준에서의 협력이 지표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역량강화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명시적으로는 글로벌 협력을 주요영역으로 발현시키고 있지는 않으나 정보화 영역은 SDGs에서 이행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매우 밀접하다. 녹색성장지표 또한 글로벌 녹색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수준의 협력을 강조하는 SDG 글로벌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녹색성장지표의 공통 특징은 해당 지표체계가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 환경적인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경제 및 사회 영역은 국가라는 지리적인 경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반면에 환경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하늘에는 경계가 없다’는 말처럼 환경오염이 미치는 효과는 국가를 넘어서기 때문에 글로벌 수준에서의 공동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 SDG 글로벌지표를 기준으로 지표체계 간 영역 중첩성을 살펴보자. <표 1-12>에 따르면, SDGs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가장 많은 영역에서 중첩되며, 다음으로 국가주요지표 및 사회지표와 중첩되었다. 녹색성장지표의 경우 국가주요지표와는 환경 영역에 집중되어 중첩되었던 것과 달리, SDGs와는 좀 더 다양한 목표와 중첩되었다. 녹색성장지표를 제외한 지표체계 간에 가장 많이 중첩된 영역으로는 빈곤종식(목표1), 보건 및 웰빙증진(목표3), 교육보장 및 평생교육기회 증진(목표4), 경제성장 촉진 및 일자리 증진(목표8),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목표11), 평화와 정의, 제도 구축(목표16)이다.

앞의 국가주요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UN은 MDGs를 SDGs로 개편하면서, 목표 달성의 수혜자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까지 미치는 방향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형 이슈라 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초점을 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공통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최근에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삶의질지표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체계에 비해 중첩성이 높지 않다. SDGs에서는 보건 및 웰빙증진(목표3)을 단일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삶의질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질과 함께 주관적 웰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주관적 웰빙은 SDGs를 기준으로 볼 때 잔여범주에 해당한다.

둘째, SDGs의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역량강화(목표5)는 어느 지표체계 하에서도 고유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가주요지표와 사회지표에서 가족 영역에 포함된 가사노동시간, 국가주요지표와 사회지표에서의 사회통합(여성국회의원비율),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 지표가 다루어지고 있다. SDGs에서는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따라서 취약집단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여성’은 그 중에서도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별도의 목표로 구성된 것이다.

셋째, 교육은 여러 지표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영역이다. 그런데, 사회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교육 영역은 개념적으로는 SDGs와 일치하나 개별 지표 수준에서는 중첩되는 지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SDGs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표의 내용이 기존에 주로 측정해오던 형식교육 위주의 양적인 측면(진학률 등)보다는 비공식교육, 시민교육, 평생교육 등의 새로운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랫동안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온 교육영역의 경우 개별 지표수준에서의 중첩성이 낮은 것은 사회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넷째, 가장 세분화된 환경 영역을 보유하고 있는 SDGs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목표13), 물과 위생시설 접근성 향상과 관리(목표6)는 아직까지 기존 국내의 지표체계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SDG 국가지표는 이러한 변화 등이 잘 포착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개별 지표 수준

한 사회의 경제·사회·환경을 삶의 질, 사회의 질, 지속가능발전, 국가발전 등의 차원에서 다루는 지표체계는 통상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래서 이들은 공히 경제발전이나 사회진보, 또는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지표의 구조(영역) 및 측정(지표)에서 서로 유사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위에서 살펴본 7개 지표체계도 작성목적, 개념틀, 영역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표체계의 가장 하위차원인 측정, 즉 개별 지표 수준에서의 중첩성을 살펴보자. <표 1-13>은 그 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인데 여기에는 SDG 글로벌지표와의 비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SDG 글로벌 지표 중 상당수가 아직 개념정의와 산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비교가 어려워 <표 1-14>에 별도로 제시하였다.¹²⁾

<표 1-13> 개별지표 수준 중첩성 분석

	국가주요지표 (184개)	삶의질지표 (81개)	녹색성장지표 (41개)	e-나라지표 (740개)	사회지표 (277개)	지속가능발전 지표(84개)
국가주요지표	100.0	60.5(49/81)	31.7(13/41)	9.9(73/740)	37.5(104/277)	51.2(43/84)
삶의질지표	26.6(49/184)	100.0	9.8(4/41)	3.1(23/740)	18.4(51/277)	11.9(10/84)
녹색성장지표	7.1(13/184)	4.9(4/81)	100.0	1.2(9/740)	3.6(10/277)	13.1(11/84)
e-나라지표	39.7(73/184)	28.4(23/81)	22.0(9/41)	100.0	32.9(91/277)	67.9(57/84)
사회지표	56.5(104/184)	63.0(51/81)	24.4(10/41)	12.3(91/740)	100.0	39.3(33/84)
지속가능발전지표	23.4(43/184)	12.3(10/81)	26.8(11/41)	7.7(57/740)	11.9(33/277)	100.0

* 국가주요지표의 경우 국제비교지표는 주요 및 보조지표와 중복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국가주요지표와 삶의질지표는 49개(60.5%), 녹색성장지표는 13개(31.7%), e-나라지표는 73개(9.9%), 사회지표는 104개(37.5%), 지속가능발전지표는 43개(51.2%) 중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삶의질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경우 절반 이상이 국가주요지표와 중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삶의질지표와 녹색성장지표는 4개(9.8%), e-나라지표는 23개(3.1%), 사회지표는 51개(18.4%), 지속가능발전지표는 10개(11.9%) 중첩되어 삶의질지표는 다른 지표체계와 중첩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녹색성장지표의 경우 지표의 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첩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비율만 비교해 본다면 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중첩비율이 13.1%로 가장 높았다. 이는 두 지표 모두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지표는 삶의질지표(63.0%), 국가주요지표(56.5%)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지표(39.3%) 순으로 중첩비율이 높았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녹색성장지표와 국가주요지표 간에 중첩성이 높았다.

12) 중첩되는 지표명은 부록의 <부표 1-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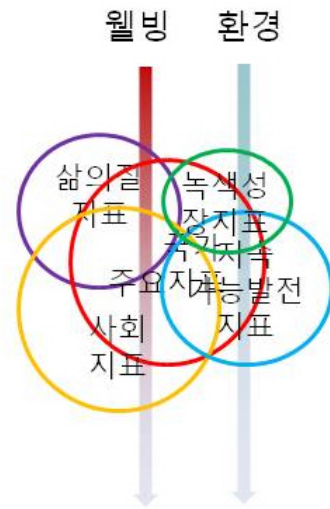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개별지표 수준에서의 중첩은 크게 두 개의 축이 세워지는데, 그 하나의 축에는 국가주요지표, 사회지표, 삶의질지표가 다른 하나의 축에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녹색성장지표가 모이는 양상을 띤다. 후자의 두 지표체계 모두 환경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전자는 삶의질이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지표체계라는 공통요인으로 묶일 수 있다. 다만 삶의질지표의 절반 이상이 국가주요지표나 사회지표와 중첩된다는 점에서 지표의 포함관계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량적인 중첩성과 함께 과연 이 중첩되는 지표가 어느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지표체계 간 상향식으로 판단한 영역 중첩성을 보면,

고용과 노동, 건강, 생활환경과 오염은 거의 모든 지표체계에서 중첩되는 지표를 다루고 있다. 국가주요지표를 기본축으로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는 가족, 문화와 여가, 범죄와 치안, 사회통합, 주거와 교통을 중심으로 다른 지표체계와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성장과 안정, 고용과 노동,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에서는 사회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에서 중첩되는 영역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한편, e-나라지표는 가장 많은 지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체계와의 중첩 비교에서 중첩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것은 e-나라지표가 국정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공급자 중심의 지표체계로 광범위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지표와의 중첩성을 보면, 사회지표가 워낙 오래 전에 만들어진 데다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시기별로 다양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에 지표수는 증가하였으나, 원래 작성목적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영역마다 조건(condition), 투입(input), 결과(output)라는 논리와는 연결성이 떨어지는 지표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14>는 SDGs의 17개 목표를 기준으로 지표체계 간 중첩성을 개략적으로 비교한 결과이다. 중첩 지표의 수를 헤아려 보면, SDGs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공통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84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30개가 SDG 글로벌지표와 동일하며, 이 결과는 위의 영역 비교 결과와 일관적이다. 그 다음으로 SDGs와 공통성 비중이 높은 지표는 녹색성장지표(26.8%)와 삶의질지표(21.0%)이다. 국가주요지표의 경우에는 184개의 지표 중 14.7%인 27개의 지표가 SDGs와 동일하다. 녹색성장지표가 영역 간 비교나 위의 국가주요지표와 삶의질지표와의 비교에서 공통성이 항상 가장 낮았던 것을



[그림 1-9] 개별지표 수준의 중첩 요인

상기하면, 녹색성장지표와 SDGs 글로벌지표 간 높은 공통성은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표 1-3>에 제시된 것처럼 녹색성장지표와 SDGs가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표는 모두 목표 11, 12, 14, 15에 포진해 있다. 목표 11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목표 12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확립’, 목표 14는 ‘해양 생태계 보호’, 목표 15는 ‘육상 생태계 보호’인데, 이 네 가지 목표는 모두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다. 즉 SDGs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미래 이슈이자 선진국형 이슈를 대거 지표 선정에 반영하면서 녹색성장지표와의 높은 중첩성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표 1-14) SDG 글로벌지표 기준_개별 지표 중첩성 비교

지표명	중첩지표 개수 (개)	중첩지표/전체지표 (%)
국가주요지표	27	27/184 (14.7%)
e-나라지표	11	11/740 (1.5%)
삶의질지표	17	17/81 (21.0%)
사회지표	38	38/277 (13.7%)
녹색성장지표	11	11/41 (26.8%)
지속가능발전지표	30	30/84 (35.7%)

그런데 중첩성 분석 과정에서 사회지표와 e-나라지표에서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국가주요지표의 ‘자살률’이라는 지표는 사회지표에서 ‘주요 사인별 사망률’이라는 지표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지표 안에는 당뇨, 심장질환, 간질환, 자살 등 다양한 사인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었다. 국가주요지표의 합계출산율이라는 지표는 e-나라지표의 합계출산율이라는 지표와 출생사망추이라는 지표 두 곳에서 중복적으로 발견된다. 출생사망추이 안에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남녀별 기대수명 및 사망률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복이 발생한 이유는 합계출산율이라는 지표는 보건복지부가 지표관리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출생사망추이 지표는 통계청이 지표관리담당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표선정에 해당 부처의 자율권이 부여된 상태이다 보니 선정된 지표 내부 중첩성이 발견된 것인데 이는 지표 간 조정기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그리고 만일 합계출산율이라는 지표 하나만을 e-나라지표에 남겨놓는다면 이 지표를 어디에서 관리해야 하는지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e-나라지표 업무편람에서 관리주체는 작성된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이 과거에는 통계생산의 기능을 해왔다면 최근 정책에 활용되는 지표를 생산하는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그러한 기능이 기존의 정책집행부처에서 해오던 역할과 중첩된다는 점에서 관리주체를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지표나 e-나라지표의 경우 단일의 지표명 하에 다양한 통계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서 사실 지표 그 자체보다는 지표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라. 지표 간 비일관성 유형

(하위)영역 및 개별 지표 수준에서의 비교를 통해서 지표 간에 다음과 같은 비일관적인 경향이 발견되었다. 첫째 동일한 지표가 지표체계 간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배치된 경우, 둘째 지표명(핵심용어)은 동일하나 수치가 다른 경우, 셋째 보고자 하는 현상은 동일한데 서로 다른 지표명이 부여된 경우이다. 넷째, 지표는 서로 다르나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 동일한 지표가 지표체계 간 서로 다른 (하위)영역에 배치된 경우

- 산업재해율: 국가주요지표에서는 고용과 노동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삶의 질지표에서는 고용/임금 영역이 아닌 안전 영역에 포함

■ 지표명(핵심용어)은 동일하나 지표산식이나 자료원천 차이에 의해 수치가 다른 경우 (지표산식과 자료원천이 동일한데 업데이트 주기 차이로 인한 수치가 다른 경우는 제외)

- 삶의 만족도: 국가주요지표에서는 사회조사의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삶의질지표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0~10점 척도로 조사하여 평균값으로 삶의 만족도 측정
- 공적개발원조비율: 국가주요지표는 GDP 대비, 지속가능발전지표는 GNI 대비하여 공적개발원조비율을 산출
- 경찰관수: 국가주요지표는 경찰통계연보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10만명당 경찰관수를, 사회지표는 경찰통계연보의 경찰관수를 제공
- 인구성장률: 국가주요지표에서는 인구성장률을 $\log(p_t \div p_0) \div t * 100$ 로 계산(p_0 는 해당기간 시작 시점의 인구, p_t 는 해당기간 종료시점의 인구, t 는 해당기간 연수), 사회지표는 동일 지표명이 $(p_t - p_{t-1}) \div p_{t-1} * 100$ 으로 계산

■ 지표명은 다르나 동일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

- 상대적 빈곤율 vs 빈곤인구비율: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비율을 삶의질지표와 사회지표에서는 상대적 빈곤율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빈곤인구비율로 표현
- 인구성장률 vs 인구증가율: 사회지표에서 산출된 인구성장률($(p_t - p_{t-1}) \div p_{t-1} * 100$)을 지속가능발전지표에서는 인구증가율로 명명
- 연안습지면적 vs 갯벌면적: 동일한 자료원천으로 국가주요지표는 연안습지면적을,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갯벌면적으로 표현

■ 지표 간 정의 및 산식은 다르나,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 공적연금수급율 vs 공적연금가입률 : 국가주요지표는 (공적연금수급자수÷공적연금가입자수)×100, 삶의질지표는 (공적연금가입자수÷만18~59세 추계인구)×100으로 계산
- 기대수명 vs 기대여명: 통계청 생명표를 기반으로, 국가주요지표는 연령별 사망률 통계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산출, 지속가능발전지표는 동시 출생한 집단이 각 연령별로 현재의 사망률을 경험한다는 가정 하에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년수를 산출
- 고령화지수 vs 고령인구비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주요지표는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100), 지속가능발전지표는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 인구/총인구)×100)을 계산
- 월평균실질가구소득 vs 균등화중위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국가주요지표는 월평균실질가구소득을, 삶의질지표는 균등화중위소득을 산출

■ 기타 비일관성 사례

- 자료원천 표현방식
 - 1차 자료 제시 vs 2차 자료만 제시
 - 산식계산에 활용된 모든 자료 제시 vs 핵심자료만 제시: 국가주요지표는 연구개발투자비율의 원천을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으로, 사회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전자만 제시
- 지표명의 불일치: 국가주요지표는 연구개발투자비율(GDP 대비), 사회지표는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지속가능발전지표는 GDP 대비 R&D 지출비율로 제시

- 하나의 지표체계 안에 중복되는 지표: e-나라지표에는 출산율(합계출산율)과 출생 사망 추이 지표가 있는데 후자에는 합계출산율 뿐만 아니라 출생아수, 남녀별 기대수명 및 사망률 포함

3. FGI 방법 및 주요 결과

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지표체계 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는 진행자(moderator) 주제 하에 통계청에서 서비스 중인 지표체계 간 조정의 필요성, 지표체계 전반적인 발전방안 등을 중심으로 약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참석자가 주제에 대한 정보 제한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지표체계 정보와 주요 질문을 사전에 전달하였다. FGI는 2라운드에 걸쳐 서울과 대전에서 실시하였다. 참석자는 지표 연구 경험이나 지표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다양한 층위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15〉 FGI 참석자 특성

그룹1 (1일차) _ 대전	그룹2 (2일차) _ 서울
○참석자(가): 정부출연연구기관, 50대 남	○참석자(바): 정부출연연구기관, 40대 남
○참석자(나): 정부출연연구기관, 40대 남	○참석자(사): 정부출연연구기관, 50대 남
○참석자(다): 지자체 연구기관, 40대 남	○참석자(사): 지자체 연구원, 50대 여
○참석자(라): 시민단체, 40대 남	○참석자(아): 민간기관, 40대 남
○참석자(마): 시민단체, 40대 여성 (불참)	○참석자(자): 민간기관, 50대 여

나. 주요 의견

FGI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계청 지표체계의 명칭을 통해 해당 지표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여러 지표체계 간 중첩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작업이라는 게 중론이다. 모든 지표체계는 고유의 목적을 갖고 있다. 설령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동시에 각 지표체계에만 해당하는 고유의 지표 또한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표체계로 조정하는 것은 반대급부의 수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지표체계 중에서 녹색성장지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 SDG 글로벌 지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통합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지표와 e-나라지표는 지표라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 국가주요지표가 삶의질지표, 사회지표 등을 포괄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조정의 필요성이 과연 이용자 입장인지, 정부부처의 입장인지 또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서 조정의 방향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의견들을 나열한 것이다.

■ 통계청 지표체계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 용이성 평가

-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통계위주로 수집을 하거나 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표 정보를 습득하고 있음
- 지표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 집중적으로 찾게 됨
- 대부분의 정보는 KOSIS를 통하여 해결함.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간자료를 주로 다루고 있다 보니, 읍면동 단위의 세부적인 자료는 각 지자체를 통하여 얻고 있음
- 지표체계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다 보니 국가 단위 지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음.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통계청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얻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별도의 창구를 통하여 자료를 얻고 있음
- 일반이용자 입장에서 연구과제를 위해 사회지표를 활용한 경험이 있지만 그 외 지표체계는 처음 접해봄. 연구자들은 시의성을 중요시하다 보니 시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종합적인 지표체계보다는 개별지표들을 통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 통계청에서 서비스 중인 지표체계 간 중첩성에 대한 의견

- 각 지표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정립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혼란이 있음
- 지표체계 명칭만 봤을 때에는 이 지표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일반인들이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 처음 지표를 만들 때는 지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각자 고유의 특성을 갖춘 지표로 시작하지만, 각 지표를 만들고 관리하고 생산하는 그룹들의 이해가 달라 온갖 지표들을 추가하다 보니 본연의 지표 역할을 초월하면서 지표 결과물들이 서로 비슷해지는 결과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임
- 여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지표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지표체계들을 정리하여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함. 각 정권마다 중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들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지표들을 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표들을 계속 새롭게 개발하는 경향이 있음. 새롭게 개발된 지표의 경우, 기존 지표를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보다 발전된 지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그 안에서 지표 간 중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문제도 발생함
- 현재 사회지표나 e-나라지표는 통계DB 성격의 역할을 하고 있어 지표 본연의 역할인 정책방향과 같은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지표를 줄이거나 지수화하거나 지향점이 명확한 지표들은 남겨두고 나머지 지표들은 통계DB 역할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통계청에서는 국가 전반적으로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하고, 녹색성장지표 같이 특정 부처가 연상되거나 지표성격이 명확한 경우는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주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지표체계 간 조정의 필요성

- 한 영역 안에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어떤 집단을 위해 간결하게 하면 또 다른 집단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지표들을 축소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통계청에서 지표들 간의 연계·추이를 밝혀 줄 수 있다면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할 것 같음
- 지표체계에 대한 것과 사용자 입장은 별개로 생각해야 함. 지표체계는 독자적 목적이 있으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표체계 전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활용할 개별지표를 어떻게 찾을지가 관심임
- 지표체계들은 각각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고 봄. 각 지표체계들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가 지표체계 구조의 문제인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못한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함

- 지표체계 안의 지표들은 모두 의미가 있고 필요함. 일반인들은 지표체계로 접근하기보다는 필요한 개별 지표들만 선택하여 활용할 뿐 지표체계에 대한 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음. 지표체계 간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으면 일반인 입장에서도 접근하기 수월할 것임
- 각 지표 간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 있음. 000의 사례로 설명을 하자면 지속가능발전지표와 행복지표 간 관계 정립을 처음에는 위계관계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보완적 순환관계로 결론지어지고 있음. 녹색성장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SDG 글로벌지표는 성격상 체계통합이 가능할 것이며 그 외 지표들에 대해서도 관계정립을 통해서 지표체계 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제시되어 있는 지표체계들은 존재 이유에 대한 타당성이 있음. 삶의질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녹색성장지표 이 네 가지는 병렬관계로 보고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상위의 국가지표 체계가 필요함
- 영역별로 차이가 없는 이유는 지표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임. 지표체계의 조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통합’이라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체계화할 것이 없음. 중첩성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 얼핏 보면 지표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쉽지 않음. 통계청은 개별 지표의 특징에 대해 먼저 알릴 필요가 있음

■ 유사 지표체계 간 조정 방안에 대한 의견

- 지속가능발전지표는 환경부 소관이므로 논외로 생각되어지고 녹색성장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하위영역으로 흡수되어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사회지표 중심으로 관계정립이 필요함. 국가주요지표는 전체적인 중심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삶의질지표는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국가주요지표 안에서 선택하고 주관지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립하고, 사회지표는 통계DB의 성격이 강하므로 지표체계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함
- 중복이란 표현보다는 공통이라는 단어로 달리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 공통부문에 대하여 상위 개념을 만들어볼 수 있고 공통이면서 차별화된 부분과 각자 독자적으로 있는 영역들을 나누어 리스트를 작성해보면 관계에 대한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국가주요지표를 최상위로하여 나머지 지표들을 영역별로 하위에 놓는 방안도 있음. 중첩의 문제는 국가주요지표 포괄성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보이며 이름 설정의 문제라고 봄
- 현 정부에서도 지표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표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표체계에 대한 성과평가를 도입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함. 성과 기준을 활용성에 두고 잘 활용되지 않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정리하여 간소화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국가주요지표를 통계청 주요지표로 놓고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주요한 지표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국가 주요 100대 지표 같은 것을 제시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울 것 같음
- 비슷한 성격의 녹색성장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SDG 글로벌지표를 하나의 체계로 조정하고 삶의질지표, 사회지표의 주요 지표들을 국가주요지표에 포함시켜 국가주요지표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음. 6개의 지표를 한번에 체계화하는 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지표체계를 줄여나가면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주요지표의 국제비교지표와 SDG 글로벌지표를 하나로 묶어 국제비교를 위한 지표와 그 외 국내지표 두 개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음
- SDG 글로벌지표는 별도로 진행되는 지표라 현실적으로는 통합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됨
- 삶의질지표는 궁극적으로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한 지표이고, 사회지표는 해석이 필요없는 통계DB 성격이 강하며, 국가주요지표는 그 중간에 있다고 봄. 통계청이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역할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부터 해오던 지표에 대한 저변을 탄탄하게 구축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함
- 국가주요지표가 현재 경제, 사회, 환경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 사회커뮤니티를 반영할 수 있는 인적자본 영역을 추가하여 모든 지표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단순화된 하나의 지표체계를 생각해볼 수도 있음

■ 지표체계 관련 전반적인 발전방안

- 통계청은 전체적인 지표 주관기관으로서 관계정립이 필요한 지표들을 하나의 사이트에 서비스하고 그 안에서 지표체계에 대한 의견공유 창구를 만들어 각 부처들이 스스로 정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지표들 중 지표로 보기에는 부족한 지표들에 대해 통계청의 품질진단을 적용하면 지표 품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
- 지표체계로 만들고 관리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비추었을 때 옳다고 봄. 1,000명당 의료시설 수가 늘어나면 좋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의료시설 공급없이 인구가 줄어드는 경우처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여지가 있어 여러 지표들을 같이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지표체계를 통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계청만이 이 역할이 가능하다고 봄
- 현재 통계청에서 4개 지표를 같은 공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형식상으로 봤을 때 녹색성장지표와 e-나라지표는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함
- 지표서비스 운영이 생각보다 잘되어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지지만, 이 지표들을 활용해야 할 정책수립 관계자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지표체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단순히 지표 하나를 찾고 싶은데 상위영역부터 클릭하여 들어가야 하는 하향식 형식이 불편함. 영역들에 대한 지수화 없이 별개의 지표로만 발표하면 지표 간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움. 지표체계 홈페이지의 즐겨찾기에 각 지표들을 비교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이 기능을 좀 더 발전시켜 비교지표들 간에 합을 보여준다든지 하여 좀 더 다양한 서비스들을 고안하면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 지표자체가 핵심을 반영해 주어야 된다고 봄. 여기에 제시된 지표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다른 부처에서 중요시 하는 핵심지표들이 많다고 생각함. 이 누락된 지표들을 파악하여 추가하면 정책 활용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또한 통계청에서는 이 핵심지표들이 정책 등에 잘 반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함
- 이용자는 일반국민을 포함한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크게 두 부류가 있음. 이용자들의 지표체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집단 간에 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인지해야 하고, 지표체계 형태보다는 교육, 경제, 가족, 사회 등 주제별 형태로 구성하여 웹상으로 서비스가 되어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관계부처에는 아직까지는 별도의 책자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통계청 지표의 활용도에 따라 통계청 위상 등 모든 게 관련된다고 봄. 중요 핵심지표를 포함시켜 활용도를 높이고 통계청과 관계부처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용자 입장에서 꼭 있어야 할 지표가 보이지 않으면 지표체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지표들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
- 통계청이 관리할 것과 부처가 관리할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지표체계 중에 영역별로 지표 수가 편중된 부분이 있는데 지표가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추가지표 등) 같은 별도의 설명이라도 첨부한다든지 하여 영역별로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 지수화는 중장기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임.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범적으로 몇 개의 영역에 대하여 지수화 작업을 시도해보면 일반인 접근성 및 통계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지수화는 일반인에게 이해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발표하는 부처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제5절 유사 지표체계 개선방안 제언

1. 유사 지표체계에 대한 조정 입장

유사한 지표체계가 산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지표체계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연 유사한 지표체계는 서로 조정해야 하는가? 조정을 한다면,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지표체계의 조정은 단순히 두 지표체계 간에 중첩성이 높다고 해서 칼로 무를 자르듯 진행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지표체계의 조정은 중첩정도 뿐만 아니라 각 지표체계의 작성목적 및 개념틀, 활용도, 작성기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정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상해보기 위해 먼저, 통계청 지표체계를 대상으로 분석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는 향후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기관의 지표체계 간 조정문제에 대한 함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글로벌 및 지역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유사한 지표체계에 대한 다양한 흐름을 두고 조정기제의 부재로 인한 혼란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정자의 역할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 유사한 지표체계에 대한 절대적 조정은 비현실적이거나 혹은 반생산적(counter-productive)이라는 점은 과학적 영역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절대적 조정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수립된 개별 지표에 잠재되어 있는 관점 간의 차이를 지워버리고 동시에 새로운 잔여범주(residual category)를 탄생시키기 때문이다(Demaiilly et al., 2015; Star, 2010; Sebastian, Bauler and Lehtonen, 2014).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된 지표체계 간에 개념틀 및 주요 영역, 개별 지표 수준에서 유사한 특성들이 발견된다. 지표체계들 모두 비슷한 시점에 개발되었으며, 이보다 오래 전에 개발된 지표체계 또한 사회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표체계 간에 점차 수렴되어지는 경향이 발생한 것이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사회지표 또한 지금까지 세 차례의 개편이 진행되면서 점차 사회의 질,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식으로 진화되어 왔는데 이러한 개념은 최근에 개발된 국가주요지표나 삶의질지표, SDGs 등에서 핵심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개념이다. 또한 지표선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비교가능성’이나 ‘측정 및 가용가능성’이 고려되므로 특정 지표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개념의 측정은 처음부터 지표를 완전히 새로 개발하는 수고보다는 이미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이 확보된 기존 지표의 검토를 통해서 출발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여러 지표체계 간 개별 지표수준에서의 중첩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성만을 두고 지표체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고유의 작성 목적을 갖고 출발한 만큼 내용상 중첩되는 부분과 함께 차별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예컨대 국가주요지표와 삶의질지표가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으나, 국가주요지표는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삶의질지표는 개인 삶의 질 증진의 총합으로서의 사회발전에 치중하고 있는 식이다. 동일한 현상을 두고 출발하였어도 개념틀에 따라서 지표체계의 구조도 다를 수 있다. 산업재해율이 국가주요지표에서는 고용영역에 포함되는 반면에 삶의질지표에서 안전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표체계에 따라 공적연금가입률을 선정할 수도, 공적연금수급률을 선정할 수도 있다. 중첩에 따른 어느 한 지표체계의 소멸(termination)은 복잡한 사회현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차단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표체계의 통합(consolidation)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표체계 간 포괄범위, 연관성 등을 분석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꾀하는 방향이 필요하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Sebastian and Bauler(2013)는 어떠한 지표를 사용할지는 지표의 과학적인 품질보다는 지표가 개발되고 사용되는 일반적인 정치적 맥락과 함께 사용자 프레임워크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중첩성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지표 간 비일관성 유형이나 e-나라지표처럼 한

지표체계 내에 중복적인 지표가 발견되는 점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앞서, 몇 가지의 비일관성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 지표명은 동일하나 지표산식이나 자료원천에 따라서 수치가 다른 경우, 동일개념을 측정하고 있으나 지표명이 다른 경우, 지표명·자료원천 등의 서로 다른 표현 방식 등에 대해서는 표준적인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일관된 지표명, 자료원천, 산식, 수치를 제공해야 이용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적개발원조비율을 어느 지표체계에서는 GDP 대비로, 또 다른 지표체계에서는 GNI 대비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지표를 활용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과연 어느 지표를 사용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지표체계의 조정은 이론적 측면과 통계적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론적 조정은 잔여범주의 발생뿐만 아니라 지표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간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 단, 단일의 기관에서 생산되는 유사한 지표체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각각의 지표체계를 유지하여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이라는 장점이, 중첩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적인 측면을 상쇄하고도 남는 일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반면, 지표체계 간 통계적 조정은 필수적이며, 그 역할은 통계청에서 수행해야 한다. 개별 지표 수준에서 발생하는 비일관성을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일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국가통계 전반적인 수준에서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다. 지표에 대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것은 지표는 반드시 국가통계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2. SDG 국가지표 개발 방향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현재의 분위기 하에서 지표 개발 및 확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 지표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 미리 정해진 목표의 달성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간단한 척도이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지표체계의 부재는 때로는 진전을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Birch and Lynch, 2012). 현재 글로벌 차원의 최대 목표인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측정하는 SDG 글로벌지표는 모든 국가,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보편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표체계의 길잡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UN은 향후 개별 국가들은 글로벌지표를 근간으로 하되, 국가적 맥락을 반영한 지표체계를 개발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SDG 국가지표와 기존 지표체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SDGs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법률상의 관련을 갖는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정부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년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서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SDGs는 리우+20회의에서 발전된 지속가능발전과 MDGs의 후속작업 논의가 통합되어 채택된 것이니 만큼 지속가능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연관된다.

이와 함께 SDG 글로벌지표와 다른 지표체계 간의 중첩성을 분석해 본 결과, 지속가능발전지표> 녹색성장지표> 삶의질지표 순으로 중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DG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관계를 가늠케 해준다. 특히 녹색성장지표가 다른 지표체계와 중첩성이 낮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SDGs와의 중첩성이 높은 것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녹색성장지표의 상당수가 SDG11, 12, 14, 15의 환경과 관련된 이슈이다.

이외에 주요하게 한국사회의 종합적인 발전상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주요지표와 사회지표까지 고려한다면, 이들 지표체계 간에서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지표는 SDG 국가지표의 풀(pool)이 될 수 있다. 중첩성이라는 용어는 자칫 부정적인 뉘앙스를 표출할 수도 있으나 이는 동시에 공통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핵심지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의 분석결과에서 지표수가 적고 녹색성장이라는 한정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녹색성장지표를 제외한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사회지표, e-나라지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4개 이상의 지표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니계수, 고용률과 실업률, 기대수명, 비만율, 자살률, 미세먼지농도, 온실가스배출량 등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주요한 키워드로 볼 수 있다. SDG 국가지표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반영해야 하며 동시에 종합적인 지표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핵심적인 지표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에는 통계청 지표체계 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생산 중인 지표체계에 대한 유사한 검토 작업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의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와 같이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표체계가 다양한 부처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지표들은 SDG 국가지표 체계의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SDG 국가지표는 다음의 역할들을 수행해야 한다. 지표체계가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지표체계 안에 다양한 유형의 지표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SDG 글로벌지표는 결과 혹은 성과 중심의 지표이다. 물론 이러한 유형이 사회적인 현상을 모니터링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인과모형이 필요한데, 인과모형은 대안적인 정책이 초래할 상이한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정책대안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향후 통계시스템은 결과와 정책 개입 간의 인과관계를 분별해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Fellegi, 1999; 남궁근, 2001).

또한, SDG 국가지표는 지방단위에서 작성되는 SDG 지방지표와 수직적인 정합성을 띠어야 한다. 글로벌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지표를 개발한 것은 우리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수준에서 UN은 국가적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지표체계 간의 조정기제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에서 지표가 필요한 것 또한 동일한 맥락이다. 국가적 지침이 없다는 사실은 하위 단위에서 발생하는 많은 노력들을 통일된 측정치로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각 지방의 노력들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비전의 달성을 향한 진전 정도를 측정하는 효율적이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지가 기본적 난제이다(Birch and Lynch, 2012).

3. 지표체계 개발과정에서 통계청의 새로운 역할

우리나라는 2007년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통계지표를 작성하여 정책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통계와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민호 외, 2012). 이후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통계청의 역할 또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통계청의 핵심 역할이 국가의 기본통계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계 생산은 더 이상 통계청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¹³⁾ 생산된 통계를 공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평가의 도구가 되는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활용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유사한 지표체계 간 조정의 역할에서 주제영역에 대한 이론적 조정은 각 부처와의 영역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모든 지표체계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지표는 통계청이 표준을 정립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13) 통계시스템은 연속체(continuum)로 볼 수 있다. 연속체의 한 끝에 집중형 통계시스템이, 다른 한 끝에 분산형 통계시스템이 있다. 전자는 공식통계의 대부분을 한 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 캐나다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단일 기관에서 국가의 모든 공식통계를 독점적으로 수집하는 곳은 없다(UN, 2003). 한국은 조정기능을 보유한 분산형통계시스템(decentralized statistical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405개의 통계작성기관에서 1,000개의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를 생산하고 있다. 405개 통계작성기관 중 43개가 중앙정부, 260개가 지방정부 그리고 102개가 공공 및 민간 통계작성기관이다.

첫째, 통계청은 이해당사자 의견에 근거한 핵심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표체계를 검토하여 공통적으로 도출되는 영역과 지표를 핵심적인 지표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지표는 여타의 기관에서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이러한 핵심지표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기본통계를 생산하고 품질관리 등 조정의 역할을 하는데, 지표체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지표체계를 생산하고, 부처에서 생산 중인 지표체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지표체계에서 활용되는 핵심지표에 대해 지표명, 지표산식, 자료원천 등을 통일시켜 생산자 및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통계청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 생산되는 지표체계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알기 어려우나, 이러한 지표체계들이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해당지표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작성된 지표에 대한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FGI를 통해서 일부 의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현재의 지표포털 서비스 방식은 연구자 접근방식으로 정보접근경로가 매우 복잡하다. 핵심지표가 개발된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지표체계 서비스 개편이 필요하다.

통계지표의 작성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무수히 많다.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은 “중요한 것을 모두 측정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Richard Layard)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측정하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장하준, 2014).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측정이 난무하는 현실이다. 일단 지표가 생산되면, 지표와 지표에서 묘사하고 있는 언어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므로(Gault, 2011),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석호, 권혜지, 김태균, 박영실, 이영미, 정혜진, 홍석철(2016), SDGs 이행을 위한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통계개발원 연구용역보고서.
- 남궁근(2001), “정책지표 개발의 이론 및 방법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학술논문.
- 박영실(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모색, 국제개발협력 2:45~67.
- 석현호 외(2013), 국가주요지표 연구1: 지표체계. 통계청 연구용역보고서.
- 이민호, 이광희, 윤수재, 류현숙, 윤광석(2012),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방안 연구, 통계청 연구용역 보고서.
- 장하준(2014), 장하준의 경제학강의, 부키.
- 최종희, 김호(2015), 2015 녹색성장지표 분석보고서, 통계개발원.
- 최종희(2013), 2013 녹색성장지표 분석보고서, 통계개발원.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2017),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시민참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대안입법)
- 환경부(2016), '16년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 Birch, Eugenie L., and Amy Lynch(2012), 미국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측정, 211-231, 월드워치연구소 엮음(박준식 추천영 옮김),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도요새.
- de Vries, Willem F.M.(2001), Meaningful Measures: Indicators on Progress, Progress on Indicators.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 69(2): 313-331.
- Eurostat(2014a), Getting messages across using indicators : A handbook based on experiences from ass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 Eurostat(2014b), Towards a harmonised methodology for statistical indicators (part1: Indicator typologies and terminologies).
- Fioramonti, Lorenzo(2016), Gross Domestic Problem: The Politics Behind the World's Most Powerful Number, 조 피오라몬티, 2016, GDP의 정치학: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절대숫자, 후마니타스
- GAO(2011), Key Indicator Systems: Experience of Other National and Subnational Systems Offer Insights for the United States, GAO-11-396.
- Gault, Fred(2011), Social impacts of the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dicators, www.merit.unu.edu, 2017.6.9. 접속
- Horsch, Karen(1997), “Indicators: Definition and Use in a Results-Based Accountability System” www.hfrp.org 접속 (2017.4.7.).
- MacRae, Duncan(1985), Policy Indicators: Links between Social Science and Public Debate.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OECD(2017), The OECD Study on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Origins, Purpose, Methodological Evolutions, and Use by Countries (STD/CSSP(2017)5)

- SDSN(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Launching a Data Revolution. A report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 by the leadership Council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Sebastien, Lea, Tom Bauler, and Markku Lehtonen(2014), Can indicators fill the gap between science and policy? An exploration of the (non) use and (non) influence of indicators in EU and UK policy making. *Nature and Culture* 9(3): 316-343.
- Star, Susan Leigh(2010), This is not a boundary object: Reflections on the Origin of a concept,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35(5) 601-617.
-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UN(1999), From: Integrated and coordinated implementation and follow-up of major United Nations conferences and summits: A critical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in the context of conferece follow-up(E/1999/11)
- UN(2000), Basic indicators for the integrated and coordinated implementation of and follow-up to major United Nations conferecne and summits at all levels. E/2000/L.30.
- UN(2003), Handbook of Statistical Organization (3rd edition)., The Operation and Organization of a Statistical Agency.
- UN(2009),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New York/Geneva
(<http://unece.org/stats/sustainable-development.html>)
- UN Statistical Commission(2017),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dicators. (E/CN.3/2017/2).

<부 록>

〈부표 1-1〉 중앙행정기관의 통계포털시스템 운영 현황

기관명	기관 홈페이지 내 통계 및 지표 정보 경로	기관 홈페이지 내 지표 용어 검색 결과(주요 내용만 수록)
국가인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정보→인권통계자료 	<p>대학인권지표(2010), 경찰관서 인권상황 평가지표(2008), 국가인권지수개발위한 지표플(2013),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2016)</p>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료→통계정보→나라지표 ▪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재난현황→재난통계 	<p>교통안전지표(2017), 지역안전지표(2017), 건설안전지표(2017)</p>
법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해석정보→법령통계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마당→현황·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 통계포털(www.mfds.go.kr/stat)→식의약주요지표 ▪ 식품안전성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전국식품안전통계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기타정보→고용노동통계(laborstat.molab.go.kr)→고용·경제지표 	<p>기업일자리창출지수(2014), 예방문화지표(2014), 근로복지지표(2014), 지역일자리 공시제 평가지표(2014), 일자리 창출지수(2015), 노동분야 사회책임 이행지표(2015), 건설일용직통합심사제 사회적 책임지수(2015),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평가지표(2015), ITUC 국제노동관리지수(2016), 고용성장지수(2016), 일타혁신지수(2016), 기업경기실사지수(2016), 기업건강증진지수(2016), 건설인력고용지수(2017), 일 가정 양립 실천지표(2017)</p>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3.0 정보공개→교육통계→주요교육지표국제비교 	<p>대학교육역량 및 성과지표(2008), 기본교육여건지표(2010), 국민안전의식지수(2010), 2011 교육통계 주요지표(2011),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2012), 취업률지표(2012), 이공계인력 국내의 유출지수(2012), 산학협력 제무성과지표(2012), 교육관련지표(2012), 학교 진로교육지표(2012), 인성지수(2013), 학교 안전사고 예방지표(2014), 학교폭력지표(2014), 영양 및 식습관 지표(2015), 공동활용도 평가지표(2015), OECD 교육지표(2015),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노력지표(2016)</p>

기관명	기관 홈페이지 내 통계 및 지표 정보 경로	기관 홈페이지 내 지표 용어 검색 결과(주요 내용만 수록)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마당 → 통계정보 → (별도 포털로 연결) ▪ 통계누리(stat.molit.go.kr) → 통계마당 → 분야별통계 → e-나라지표 ▪ 통계누리(stat.molit.go.kr) → 통계마당 → 국제통계 → OECD 국가의주요지표 ▪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www.road.re.kr) → 통계자료 ▪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 부동산통계 	<p>건설교통지표(2002), 국민주택기금성과평가지표(2003), 주거복지지표(2005), 지역개발 사업성과지표(2007), 국가교통경쟁력지표(2008), 국토지표(2008), 항공유 원물시장 가격지표(2008), 건설산업의 주요경영지표(2009), 철도총괄지표(2009), 교통산업서비스수(2010), 지속가능성 관리지표(2010), 최저교통서비스지표(2011), 주택금융지표(2012),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2012),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2012),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2013), 보행 교통개선지표(2013),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2013), 에너지성능지표(2014), 철도안전지표(2015),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지표(2015), 철도시설물 안전지표(2015), 기후노출지표(2016),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평가지표(2016), 해외건설 수조통계 지표(2016), 대도시권 실태평가 지표(2017)</p>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 주요 경제지표 ▪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 알기쉬운재정 → 50대 주요지표 	<p>거시경제지표(1999), 국제수지관련 주요지표(1999), 재정구조관단지표(2002), 실물경제신행지표(2004), MSU신흥시장잠재력지표(2004), 중국경제 지표(2007), 1인당조세부담액지표(2008), 고용지표(2009), 공공기관경영평가지표(2010), 글로벌 불균형해소위험지표(2011), 대외진전성지표(2011), 공공기관 글로벌 경쟁력평가지표(2011), 중장기미래지표(2012), 내수지표(2012), 소득분배지표(2014), 고용보조지표(2014), 진전성지표(2014), 외채 진전성 및 지급능력지표(2015), 주요실물지표(2015), 외화유동성지표(2015), 재무건전성지표(2015), G20 구조개혁성과측정유위험평가지표(2016), 재정관리지표(2016), 산업활동지표(2016), 일일경제지표(2017), 주요경제지표(2017)</p>
농림축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통 → 통계정보 → 2015식품산업주요지표 	<p>OECD 농업용수 사용 및 수질지표(2003), 여성농업인 복지지표(2003), 산지유통 종합평가지표(2005), 농림환경지표(2006), OECD 농업환경지표(2006), 향토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평가지표(2007),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2007), 농촌경과지표(2007), 생활환경지표(2008), 농정지표(2009), 농림어업인 삶의 질 지표(2010), 쌀 표준품질지표(2010), 쌀가루 품질규격화 지표(2010), GAP 활성화 분야지표(2015), 2016 식품산업 주요지표(2016), 소비위축 주요지표(2017)</p>

기관명	기관 홈페이지 내 통계 및 지표 정보 경로	기관 홈페이지 내 지표 용어 검색 결과(주요 내용만 수록)
문화체육 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센터(stat.mcst.go.kr)→지표 통계→문화지표 통계, e-나라지표 	<p>지속가능한 관광개발지표(2001), 애니메이션산업 주요통계지표(2005), 만화산업 주요통계지표(2005), 캐릭터산업 주요통계지표(2005), 여성문화/성인지 통계지표(2005), 국어정책 통계지표(2009), 생태관광인증지표(2010), 한류지표(2010), 국민 체력지표(2010), 독서지표(2010), 문화예술 대표지표(2012), 한국의 체육지표(2012), 관광산업 주요지표(2012), 국악 성과지표(2013), 지역문화지표(2014), 주요문화지표(2014), 유아아동콘텐츠양성평등모니터링지표(2014), 각국언어관련 주요통계지표(2015), 국민의 문화여가수준지표(2015), 방한관광시장 질적성장 7대지표(2016)</p>
미래창조 과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통계서비스(sts.nis.go.kr)→통계지표 ISTAT(www.istat.go.kr)→기시경제지표, ICT 50대 통계지표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KISA(isis.kisa.or.kr) 	<p>과학기술 국제지표(2015), 세계 과학 공학 지표(2016), 2015국가혁신지표(2016), 과학기술 주요지표(2016), 정보통신 통계지표집(2016), 안전진단대상의 수 검진후 성과지표(2007), 업무효율지표(2010), 약성코드 수집 및 자동분석 기술 성능평가지표(2010), 스램대응팀 성과지표(2012), 인터넷 윌리교육 프로그램 성과지표(2012), 영세인터넷전화사업자 정보보호수준평가지표(2013),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 진단지표(2014)</p>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정보→자료실→통계자료 	<p>한국의 아동지표(2007), 수용생활지표(2007), 수용자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2009), 신규수감자 경비급 및 처우급 분류지표(2009), BSC성과관리시스템 민원 만족도 지표(2009), 이민자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2009), 외국인 정책 추진실적 평가지표(2010), 교정체범 예측지표(2013), 재한 외국인 사회통합지표 및 지수(2016),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사 회립활동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2016)</p>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계 	<p>환의약분야 통계지표(2004), 한방공공보건의료 평가지표(2004), 건강도시 지표(2005), 임상 질 지표(2006), 고령친화산업 통계지표(2007), 건강수명 관련지표(2008), 아동청소년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안전지표(2009), 장애인 차별 금지법 모니터링 지표(2009), 아동안전지표(2010), OECD 보건의료 질 지표(2011),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기준 및 지표(2011), 노후준비지표(2013), 국가건강 검진사업 성과평가체계 및 평가지표(2013), 맞춤 한의학기반 진행성 암 생체 지표(2014), 정신건강증진센터평가체계선택지표(2014), 응급실기반 자살기도자 사후관리 사업 성과지표(2015), 지역거점공공병원 표준진료지침 및 모니터링 지표(20016), 보건복지분야지표(2016)</p>

기관명	기관 홈페이지 내 통계 및 지표 정보 경로	기관 홈페이지 내 지표 용어 검색 결과(주요 내용만 수록)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정보→통계정보→일일경제지표, 주요산업동향 지표 ▪ 산업통계포털(www.istans.or.kr)→거시지표 	국정상황점검모니터링시스템관련지표(2005), 디지털이노인증체실시를 위한 평가 지표(2005), 06년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시행계획을 위한 성과지표(2005),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지표(2005), 자율적 조직관리성과평가지표(2005), 종합적인 산업피해지표(2006), 05년도 주요경제활동지표(2006), 지속가능경영 자기진단지표(2006),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지표(2007), 무역과해관정 지표(2007), 탄광별 주요지표(2016), IMD 국제경쟁력지표(2016), 외국자본기업의 주요지표(2016), 산업통계지표(2017), 고용지표(2017), 부도위험지표(2017), 경제지표(2017), 투자지표(2017), 물가지표(2017)
여성가족부	-	청소년보호지표(2001), 한국의 주요아동지표(2006), 여성/아동 안전지표체계 (2009),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지표(2010), 성별영향평가지표(2010), 성불 평등지수(GII)(2010), 방송사업자 보호지수 평가지표(2010), 여성고용지표(2011), 청소년지표(2011), 자기돌봄을 위한 생활역량 지표(2013), 국가/지역 성평등 지수(2015), 식품안전관련지표(2016), 유엔군무제 평가지표(2016), 여성의 사회적 지위 관련 주요지표(2016), 일과 삶의 균형 지표(2016), 일-가정 양립지표(2016), 다문화 수용성 지수(2016), 세계 성격차지수(GGI)(2016), 가족 친화인증지표(2016),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국제지표(2016), 성인지적 지표(2016), 국가성평등지표(2017), 여성안전지표(2017)
외교부	-	한-EU 경제관계 지표(2000), FDI 제한지표(2003), 한일 공동 지속가능발전 지표(2003), ASEAN 경제현황지표(2006), 글로벌코리아 국정지표(2008), 5대 국정지표(2008), 세정부 국정지표(2008), 민생 5대지표(2009), 월드뱅크 지표(2009), 테러 치안 관련 주요 객관지표(2010), 비즈니스 용이성 지표 (2010), 소득지표(2011), 소득분배지표(2011), 직업기술지표(2012), 주요경제지표 (2012), 거시경제지표(2013),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지표(2013), 민주주의 지표 (2013), 관광관련 통계지표(2015), 중소기업 국제화지표(2016), Bloomberg 혁신 지표(2016), 경제사회 개발지표(2016), 순방국 개발지표(2016), 국제학력 측정치표(2016), 페루 전력분야 주요지표동향(2016)

기관명	기관 홈페이지 내 통계 및 지표 정보 경로	기관 홈페이지 내 지표 용어 검색 결과(주요 내용만 수록)
<p>통일부</p>	<p>자료마당→통계자료→통계지표책자보기</p>	<p>북한지표(2010), 인터넷 소통지수(2013), 소셜 소통지수(2013),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2015), 탈북민 주요정책지표(2015), 통일체험연수 효과평가지표(2015), 대외 부분지표(2016), 탈북민의 우리사회 적응지표(2016), 사료관련지표(2016), 동북 3성 경제여건 평가지표(2016), 북한 제3차7개년 경제계획 주요지표(2016), 북한 보건지표(2016)</p>
<p>해양수산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마당→통계정보→e-나라지표 · 해양수산통계시스템(www.mof.go.kr)→주요지표마당→분야별지표, 주요지표, e-나라지표 	<p>UN 지속가능발전지표(2007), OECD 지속가능발전지표(2007), 물 환경 건전성 지표(2011), 연안 생태계 관리지표(2012), 국립수산물학원 연구사업 성과지표(2013), 침적폐기물 정화관리지표(2014), 수산생물 방역사업 성과목표지표(2015), 바지락의 생산생태와 건강지표(2015), 우량가리비 판별을 위한 생리지표(2015), 항만가치평가 모델 및 지표(2015), 거시경제지표(2016), 수중대저 산업통계지표(2016), 패류생산해역 위생지표(2016), 국가해양력 평가지표체계(2016), 안전경영지표(2016), 해안쓰레기 오염평가지표(2016), 해양생태계 변화 지표(2016), 수질지표(2017), 경영현황지표(2017), 컨테이너부두 적정하역 능력 운영지표(2017)</p>
<p>행정자치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료→통계 ·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대표통계→e-나라지표 	<p>기업협력 진단지표(2009), 재정위험 측정지표(2010), 개인정보보호수준 진단지표(2010), 2005 정보격차지수(2011), 지역녹색경쟁력지표(2011), 에너지 성능 지표(2011), 협업지표(2012), 지방 공기업 주요 통계지표(2013), 공작윤리 관리지표(2013), 전자정부사업 품질측정지표(2013), 공익성 지표(2014), 4대 사회악 관리지표(2014), 중소기업, 장애인 지원정책지표(2014), 비정규직 고용개선지표(2014), 지방자치단체 안전지수(2014), 지역 공동체 행복지표(2015), 2015 한눈에 보는 정부지표(2015),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2015), 새마을운동 ODA관련 통계작성 및 지역경제지표(2015),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지표(2015), 지자체 행정수요지표(2016), 지역문화지표(2016),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관리지표(2016), 중소기업 활력지수(2017), 국가주요지표(2017)</p>
<p>환경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통계포털(stat.me.go.kr)→주요환경지표 	<p>대기환경지표(1992), 황사에 의한 건강위해도 지표(2006), 도시환경성평가 지표(2007),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2008), 기후변화취약성 평가지표(2009), 자원순환평가기준 및 지표(2011), 녹색화학평가지표(2011), 환경복지지표</p>

기관명	기관 홈페이지 내 통계 및 지표 정보 경로	기관 홈페이지 내 지표 용어 검색 결과(주요 내용만 수록)
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마당→통계자료→국가지표체계 	<p>(2014), 환경보전지표(2014), 생활환경부지표(2015), 오염물 배출지표(2015), 환경보호지표(2015), GDP당 에너지 소비 지표(2015), 친환경 투자 지표(2015), 수질오염지표(2015), 환경지표(2015), OECD 농업환경지표(2015), 환경성파지수 지표(2015), 주요에너지 지표(2015), 온실가스배출 관련 주요지표(2015), OECD 환경통계지표(2015), 생태계효율지표(2015), 도시설계를 위한 환경지표(2016), 환경오염관련지표(2016)</p> <p>국정지표(2005), 법률서지수(2009), 법률서 경쟁력 평가지표(2009), 인권관련 주요지표(2010), 교통문화지수(2011), 대구고·지검 진정통계및인권수사지표(2012), 부패인식지수(2015)</p>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공감→공공데이터 개방 	<p>민생치안지표(2006), 치안정책 평가지표(2013), 4대 사회악 안전지수(2014), 5대 중점관리지표(2014), 주요 6대 지표 범위(2014), 치안수요지표(2014), 중요교통지표(2014), 주요치안지표(2015), 성폭력 객관지표(2016), 한국사회의 안전지표(2016)</p>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밀리사이트→수출입무역통계(unipass.customs.go.kr) 	<p>생활필수품지수(2008), 청렴지수(2015), 부패인식지수(2016)</p>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정보→국세통계 	<p>실물경기지표(2001), 부동산임대가격지수(2002), 소비재판매액지수(2007),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2007), 교육관련지표(2007), 소비관련지표(2007), 중부세관련 통계 지표(2007), 인구 및 보건관련 지표(2007), 행정품질 평가지표(2007), 2006년 인간개발지수(2008), 소비자물가지수(2008), 인적자본지표(2011), 국내외 과학 기술혁신정책 평가지표(2011), 주요사회개발지표(2015), 거시경제지표(2016), 경제지표(2016)</p>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날씨→생활파산업→기상재해통계 	<p>대기오염기상지수(2004), 열파지수(2006), 파머기름지수(2006), 산불위험지수(2006), 생활보전기상지수(2010), 생활기상지수(2010), 천식가능지수(2010), 레저 지수(2010), 황사영향지수(2011), 감기기상지수(2011), 기상변화의 지표(2011), 도시고온건강지수(2011), 북극진동지수(2012), 불쾌지수(2013), 감기가능지수(2014), 산업기상지수(2015), 총자외선지수(2015), 파수파해예측지수(2016), 해양 생태(감)지수(2016), 꽃가루농도위험지수(2017), 식중독지수(2017)</p>

기관명	기관 홈페이지 내 통계 및 지표 정보 경로	기관 홈페이지 내 지표 용어 검색 결과(주요 내용만 수록)
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통계정보 	<p>문화지원지표(2006), 지식행정지수(2007), 가족행복지수(2009), 문화감성지수(2009), 감성지수(2012), 문화재 재난위험 지수(2013), 문화행복지수(2013), 건강지수(2013), 관광행복지수(2014), 사회의 포용지수(2015)</p>
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병무행정통계정보 	<p>2010년도 성과지표(2010), 병무행정 5대지표(2010), 5대국정지표(2010), 고객만족도 BSC 성과지표(2010)</p>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산림정보→산림통계→임가경제통계→임가경영 분석지표, 임가경제지표 	<p>산과 산림에 대한 주요지표(2007), 도시림 관리지표(2007), 2007 녹색건강성 평가지표(2008), 연구개발지표(2010), 산림정책성과지표(2010), 임업 총생산액 지표(2010), 산림관리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주요지표(2011), 산지특성평가 지표(2012), 도시림 지속지수(2012), 산림교육 종합계획 추진지표(2013), 스트레스 지표(2015), 목재문화지수(2017)</p>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통계정보 	<p>스비효율등급부여지표(2010), 데이터품질지표(2010), 계약이행능력평가지표(2011), 경제전망지표(2011), 미국경제지표(2012), 글로벌 경기지표(2012), 경제관련 통계지표(2012), 2013년 정부물품 종합평가지표(2013), 보행교통실태조사 개선지표(2015), 고용지표(2015)</p>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통계→지표→실시간지표 · 중소기업통계→경영지표, 중소기업경영지표 	<p>중국과학기술지표(2002), 지식기반화지수(200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2006), 농업분야 중소기업 평가지표(2006), 이노비즈 평가지표(2007), 벤처경기 지표(2007), 소비자물가지수 보조지표(2008), 기술사업화 지표(2010), 녹색 경영평가지표(2011), 해외규격인증평가지표(2012), 중소기업 CSR 성과지표(2012), 환경규제물질분야 평가지표(2012), 중소기업제품 구매표비율제도 평가지표(2013), 중소기업 평가지표(2013),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지표(2013), 과학기술환경지표(2015), 기술활동지표(2015), 중견기업수 및 경제지표(2016)</p>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통계포털(kosis.kr)→e-지방지표, kosis 100대 지표, 국가지표체계, 삶의질지표 · 국가지표체계(index.go.kr)→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국민 삶의 질 지표, 녹색성장지표 	<p>100대지표, 노동지활용지표(2013), 경제분석지표(2015), 소득분배지표(2015), 일 가정 양립지표(2016), 주요경제지표(2016), 인건 범죄지표(2016), 2016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2016), 주요고용지표(2017), SDG 글로벌지표(2017), 2016 사회지표(2017), 국제기구 ICT 지표(2017),</p>

기관명	기관 홈페이지 내 통계 및 지표 정보 경로	기관 홈페이지 내 지표 용어 검색 결과(주요 내용만 수록)
특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자통계 · 지식재산통계(ipstat.kipri.or.kr) 	특허출원동향분석지표(2000), OECD 과학기술지표(2002), R&D 및 혁신지표(2003), 지식재산지표(2007), 특허지표(2007), 심사품질지수(2008), 국가경쟁력 지표(2010), 공통상태지표(2011), 국가R&D평가를 위한 특허성과 종합지표(2011), 심사품질 표준화 지표(2012), 포트폴리오 특성분석지표(2013), 특허성과지표(2013), 시장성지표(2014), 미래유망기술예측지표(2015), OECD 특허품질지표 PQI (2015), 국제지식재산지수(2016), 지역특성화지표(20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림소식→참고자료→통계자료→no 	연기관·공주시·청원군 행정지표(2008), 개발계획 주요지표(2009), 행정도시 예정·주변 잔여지역 행정지표(2009), 지문생활밀착형 정책지표(2016), 행정중심복합도시 정책지표(2017)

〈부표 1-2〉 정부(통계청 제외)에서 수행한 주요 지표체계 연구 현황과 지표체계 구조

용역 발주기관	지표명	사업연도	지표체계 구조			제출내용	연구수행기관
			계층1	계층2	계층3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 지표	2015(2014)	항목(3)		지표(20)	플랫폼지표, 채널지표, 프로그램지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자금세탁 판단지표	2010			지표(2)	은행별상세분석증가율, 상세분석율	(주)데이터메이신컨설팅
지역발전위원회	생활권 삶의 질 지표	2016(2015)	영역(6)	부문(14)	지표(25)	생활권기반 지역경제 고용창출, 교육, 문화·생태, 복지·의료, 기타	한국지역정책학회
고용노동부	노사의 사회적 책임 지표	2016	대분류(5)	중분류(14)	지표(68)	노동권및노사관계, 고용및노동관행, 공정운영및지배구조, 이해관계자및지역사회, 건강환경직장	한국고용노동사관계학회
	근로복지지표	2014(2013)	영역(3)		지표(25)	고용복지, 고용친화, 고용안정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응역 발주기관	지표명	사업연도	지표체계 구조			제층내용	연구수행기관
			제층1	제층2	제층3		
교육부	OECD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2013	영역(8)		지표(18)	고용의 양, 고용안정, 임금, 노동시간, 고용 평등, 노사관계, 사회복지지출, 주요 사회경제지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성별 고용평등지표	2011	영역(4)		지표(11)	노동참여도, 노동보상도, 직업안정도, 노동위상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표	2010	영역(5)		지표(70)	노사관계의 공의성 수준, 노사관계의 활동성 수준, 인적자원관리 공정성 수준, 노사관계의 만족도 수준, 노사관계의 효율성 수준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관계 영역 신뢰지표	2009	속성(6)		지표(18)	전반, 능력, 호의, 성실, 일관성, 개방성	한국노사관계학회
	OECD 학교보건지표	2010	목적(5)		지표(52)	건강상태파악, 건강행태파악, 교육성과 및 능력평가, 보건서비스의 질 파악, 정책적 의사결정, 주변환경	문경대학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2009	영역(6)	항목(14)	지표(31)	목표, 전략 및 실행 계획, 조직·예산, 인프라, 학습프로그램, 인적구성원의 활동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학벌주의 지표	2005			지표(22)	학벌색인수의비율, 학벌주의의식, 학벌주의피해의식, 고교별졸업생비율, 대학별 취업률, 출신지역비율, 대학별등록률, 기관별이직률, 자격증소지비율, 어학능력, 대학별고시합격률, 대학별박사학위 취득률, 대학별해외박사학위취득률, 고교점유지수, 대학점유지수, 출신지역점유지수, 고교별입사유, 대학별입시율, 고교별승진율, 대학별승진율, 전공일지도	동국대
	대학특성화 지표	2005	구분(3)	항목(6)	지표(98)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물	진국대

용역 발주기관	지표명	사업연도	지표체계 구조			제출내용	연구수행기관
			계층1	계층2	계층3		
국방부	군 인권지표	2015	영역(8)	하위 영역(19)	지표(125)	기본생활권, 인간존엄권, 자유권, 평등권, 청원권, 건강·복지권, 인권익·실태, 인권인프라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
	교통문화 지수 지표	2013	영역(4)		지표(14)	교통안전,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약자	교통안전공단
	보행교통개선지표	2011	분야(3)		지표(10)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물류성과지표	2008	프로세스(5)		지표(99)	입고, 보관, 유통기공 및 출고, 수배송, 정보관리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관리 지속가능성 지표	2006	분야(3)	목표(7)	지표(45)	친환경적국토관리, 형평적국토관리, 효율적국토관리	국토연구원
기획재정부	경제자유도지표	2015(2014)	영역(4)	하위영역(10)	지표(256)	경제, 사회통합, 환경, 인프라	(사)산업정책연구원
	국가위험도 예고지표의 실시간 보조지표	2003	부문(4)		지표(35)	개인, 기업, 금융, 외화	국제금융센터
농림축산 식품부	농업환경지표	2011	항목(7)		지표(43)	토지이용, 토지정보, 물관리및수질, 생물다양성, 농장관리, 양분수지, 대기 및기후변화, 농업경관 및 농경지생태계 기능, 농약사용및 위해성, 농업에너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화다양성 지표	2014(2013)	영역(4)		지표(28)	정책, 여건, 활동, 인식 지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문화지표	2014 (2012/13)	대분류(4)	중분류(11)	지표(26)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 대표지표	2011	정책목표(3)		지표(34)	문화예술의 창조적역량강화, 문화적환경 조성 문화적삶의 질 제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성평등 문화지표	2007	영역(4)	하위영역(18)	지표(40)	문화생산, 문화향수의 유형, 문화향수의 자원, 문화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	2001	분야(3)	중지표(38)	세부지표(46)	환경지표, 사회문화지표, 경제지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용역 발주기관	지표명	사업연도	지표체계 구조			내용	연구수행기관
			계층1	계층2	계층3		
미래창조 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창출 실적점검지표	2007			지표(4)	총 참여인원, 순 참여인원, 직접 신규 일자리, 보정 후 직접 신규일자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한 외국인 사회통합지표	2012 (2008/2011)	영역(7)		평가항목 (148)	노동시장 이동성, 가족결합, 장기거주, 정치참여, 국적취득 접근성, 만 차별 교육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법무부	사회보장통계 지표	2016 (2014/15)	영역(11)	세부 영역(51)	지표(162)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및교육, 근로, 소득보장과빈곤, 건강,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제정	사회보장위원회
	보건의료 질 지표	2016 (2009-2015)	영역(4)		지표(22)	급성기 진료, 일차의료, 정신보건, 환자 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지표	2015	영역(10)	핵심 지표(96)	총지표 (225)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 (삶의 질 및 지역인프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준비 지원수준 평가지표	2012	영역(4)	하위 영역(12)	지표(38)	인간관계, 건강, 재무, 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국민생활지표	2012	구분(5)		지표(316)	물질적조건(소득, 소비, 주거 등), 건강· 복지·교육, 문화·여가·노동, 가족·공동체, 안전·환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건복지 주요지표	2011	영역(4)		지표(31)	형평성, 사회경제적자립, 건강, 사회통합	서울여대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사회현황 및 사회정책지표	2009(2008)	영역(4)	관심 영역(17)	지표(113)	사회·경제적안전성, 사회적포용성, 사회 적응집성, 사회적역능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동·청소년 순상지표	2009			지표(25)	-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용역 발주기관	지표명	사업연도	지표체계 구조			제출내용	연구수행기관
			계층1	계층2	계층3		
여성가족부	정부 및 공공기관 성평등 관리지표	2013	영역(4)		지표(19)	여성대표성, 인적자원관리, 일·가정 양립, 인적자원개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이동 안전지표	2010(2009)	영역(3)	세부영 역(8)	지표(33)	안전에 대한 인식, 안전에대한위험, 예방과사후관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 지표	2009(2008)	정책(4)			여성 경제세력화, 일과 가정 양립, 여성 사회문화권 확대, 여성 정치세력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성 인지적 지표	2002	영역(8)	관심 영역(64)	지표(360)	여성인적자원개발 환경, 영유아기(0-6세) 여성인적자원개발, 아동청소년기(7-18세) 여성인적자원개발, 청소년기(19-35세) 여성인적자원개발, 중장년기(36-64) 여성인적자원개발, 노년기(65세-) 여성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개발의성과, 인적자원의 사회적유입 및 유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부	여성정보화 지표	2001	부문(6)	관심영 역(9)	지표(80)	정보화인식, 정보접근, 정보이용, 정보 역량, 인터넷활용, 정보화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일관련 국민의식변화 파악을 위한 지표	2006			지표(8)	대북정책 통일기여 지표, 대북정책 지도도 지표, 대북정책 평가지표, 통일관심 및 기대지표, 북한위협지표, 북한평가지표, 기타, 인구통계사항	한국사회과학데이터 센터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행복지표	2015	영역(3)		지표(92)	지역자원, 지역공동체역량, 삶의 질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마을진단지표	2013	영역(2)		지표(19)	지역공동체현황, 마을공동체 활성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노블레스 오블리주 지표	2009	영역(4)		지표(11)	준법, 병역, 기부사회적 공헌, 부패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용역 발주기관	지표명	사업연도	지표체계 구조			제층1내용	연구수행기관
			제층1	제층2	제층3		
	살기좋은 지역 측정지표	2007	영역(4)	부문(14)	지표(30)	편리/안전, 풍요, 아름다움, 화합	연세대학교 신학협력단
	낙후지역 선정지표	2004	영역(3)		지표(4)	인구, 경제, 재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부실패지표	2003	차원(4)	변수(15)	지표(33)	업무성과(정책/사업), 관리역량(공직자, 정부기관), 정부역량(정부기관), 공직 윤리(공직자)	성균관대학교
	국가 지속가능 개발지표	2000	범주(8)	항목(12)	지표(23)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대기질, 폐기물, 수질, 산림자원, 어족자원, 생물다양성	㈜에코프론티어
경찰청	범죄예방 지표	2010		주요 지표(10)	세부지표 (21)	범죄발생신고 및 인지, 범죄검거, 치명적 교통사고, 범죄피해, 장소 및 유죄판결 여부, 경찰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경찰활동, 문체지향경찰활동, 무관용 경찰활동	한남대학교 신학협력단
	치안경쟁력지표	2008	영역(4)	세부영역(6)	측정지표 (14)	안전과 보안증진, 공정한법집행, 고객 서비스, 경찰작용효율성	한남대학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평가 지표	2008	유형(5)		지표(50)	글로벌기업가 역량, 자원보유역량, 현지 사업 역량, 현지학습역량, 외부자원활용 역량	산업연구원
특허청	지식재산 지표	2006			지표(4)	창출지표, 관리(경영)지표, 환경지표, 경쟁력지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 사업연도 셀의 괄호 안 년도는 해당 지표 사업을 기수행한 년도를 의미함

〈부표 1-3〉 주요 지표체계 간 지표 중첩성 분석_국기주요지표 기준

중첩 판단 결과는 ●, ▲, ■, ◆로 표시하였다. ●는 두 지표가 일치하는 경우, ▲는 유사한 경우, ■는 포함관계인 경우를 의미한다. 포함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기주요지표의 국내총생산지표는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GDP, GNI, GDP 디플레이터라는 지표와 중첩되는데 후자의 포괄범위가 더 넓음을 의미한다. 한편, ◆는 두 지표가 일치하며, 어느 한 지표체계(e-나라지표) 내에서 동일 지표가 중복적으로 발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국기주요지표 및 한국의 사회지표의 경우 국제비교지표는 주요 및 보조지표와 중복되므로 표와 중첩률 계산과정에서 제외하였다.

국기주요지표	협의지표	중첩	누색성장지표	중첩	e-나라지표	중첩	사회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GDP)	■			경제성장률	●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GDP)	■	GDP, GNI, GDP디플레이터	■	국내총생산	●
노동생산성지수 (1인당)					노동생산성 지수	●	노동생산성지수	■		
벤처기업수					벤처기업 현황	●				
연구개발투자비율(GP 대비)			GDP대비 국내 총R&D비중	●	총 연구개발비	●	GDP대비 연구 개발 투자비	■	GDP 대비 R&D 지출 비율	●
특허출원수 (인구 100만 명당)					특허 등 출원/등록건수 현황	■				
수출입비율(GDP 대비)					수출입 동향	●				
외국인직접투자비율(G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공적개발원조비율(GP 대비)			GNI대비 ODA비중	▲	ODA 원조규모	●			GNI대비 ODA비중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 보장부담률	▲		
통합성장수지비율(GP 대비)					통합성장수지	●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중첩	녹색성장지표	중첩	e-나라지표	중첩	사회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국가채무추이	●	국가채무 규모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경상수지비율(GDP 대비)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				
대외채무비율(GDP 대비)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				
외환보유액비율 (GDP 대비)					외환보유액	●				
지니계수	지니계수	●			소득 분배(Gini계수)	●	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 소득5분위, 상대적빈곤)	■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
소득5분위배율							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 소득5분위, 상대적빈곤)	■		
상대빈곤율	상대적빈곤율	●					소득분배지표 (지니계수, 소득5분위, 상대적빈곤)	■	빈곤인구비율	●
고용률	고용률	●			일반고용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	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					일반고용동향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		
실업률	실업률	●			일반고용동향,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	실업률, 장기실업자 비중	■	실업률	●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	●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중 첩	녹색성장지표	중 첩	e-나라지표	중 첩	사회지표	중 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첩
여성근로자임금비율 (남성근로자 대비)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근속연수 및 월평균임금	■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
비정규직근로자임금비율 (정규직근로자대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
저임금근로자비율	저임금 근로자 비율	●			최저임금 일반현황	■				
최저임금비율(중위임금 대비)										
임금근로자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총액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근속연수 및 월평균임금	■	근로시간	●
취업자근로시간	근로시간	●								
신제사망률							산업제해자수,사 망자수	■		
산업제해율	산업제해율	●			산업제해현황	●	산업제해자수,사 망자수	■		
일자리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					근로조건 만족도, 고용안정성	■		
임금만족도							근로조건 만족도, 고용안정성	■		
노동조합조직률					노동조합 조직현황	●	노동조합,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 일수	■	노동조합,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중 중 중	녹색성장지표	중 중 중	e-나라지표	중 중 중	사회지표	중 중 중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중 중
국민총소득(1인당)	1인당 GNI	●					1인당 GDP, GNI	■		
소득만족도	소득만족도	●					소득만족도	●		
가구소득							가구 월평균 소득	■		
가구소득원천구성							가구 월평균 소득	■		
가구순자산	가구평균 순자산	●					가구평균 순자산	●		
가계저축률							가계저축률	■		
민간소비지출액(1인당)							민간 정부 최종소비지출액	■		
소비생활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					소비생활 만족도	●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	소비자물가지수	●
생활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		
인구성장률					총인구, 인구성장률	■	총인구, 인구성장률	■	인구 증가율	●
총인구					총인구, 인구성장률	■				
시망률(조사망률)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출생 사망 추이	◆	성 및 연령별 사망률	●		
체류외국인수					체류 외국인 현황	●	시도별 등록외국인수	▲		
출산율(합계출산율)					출산율(합계출산율), 출생 사망 추이	◆	총인구, 인구성장률	■		
부양인구비							인구구성비, 부양비, 령화지수	■		

국기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중첩	녹색성장지표	중첩	e-나라지표	중첩	사회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고령화지수									고령인구비율	●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평균가구원수	■		
1인가구비율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평균가구원수	■		
혼인율(조혼인율)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	조혼인율, 조이혼율, 재혼건수	■		
이혼율(조이혼율)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	조혼인율, 조이혼율, 재혼건수	■		
가족관계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					가족관계별 만족도	●		
가사노동시간					혼인상태별 및 맞벌이상태별 가사노동시간	●	연령및교육수준 별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	■		
독거노인비율	독거노인비율	●								
기대수명	기대수명	●			기대수명(0세 기대 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	성별 출생시 기대수명	■	기대수명	●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중첩	녹색성장지표	중첩	e-나라지표	중첩	사회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건강수명					기대수명(0세 기대 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평가	●					주관적 건강평가	●		
우울감경험률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		
흡연율(현재 흡연율)					음주 및 흡연현황	■	현재흡연율, 간접흡연노출률, 고위험 음주율	■		
음주율(월간 폭음률)					음주 및 흡연현황	■	현재흡연율, 간접흡연노출률, 고위험 음주율	■		
비만율	비만율	●			비만 유병률	●	신체활동실천율, 비만유병률	■	비만율	●
신체활동실천율							신체활동실천율, 비만유병률	■		
의사수(인구 1,000명당)							의사수, 간호사수, 급성기 병상수	■		
경상의료비비율(GDP 대비)					GDP대비 경상의료비 추이	●	국민의료비, 공공의료비	■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율	▲
공교육비비율(GDP 대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GDP대비 공교육비	■	공교육비 지출	●

국기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중 취	뉴세성장지표	중 취	e-나라지표	중 취	사회지표	중 취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취
사교육비(학생 1인당)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		
취학률	유아교육 취학률	■			취학을 및 진학을	■	취학률	●		
학생수(교원 1인당)							교원 1인당 학생 수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								
고등교육이수율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학업중단율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율	●		
여가시간	평균 여가시간	●					평균 여가시간	▲		
휴기활용률							휴기활용	●		
문화예술관람률	문화·여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공능원 관람객 수	▲	공연장 입장률	■		
생활체육참여율					국민생활체육 참여현황	●	생활체육참여율	●		
스포츠관람률	문화·여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공연장 입장률	■		
여가만족도	여기활용 만족도	●					여기활용 만족도	●		
인터넷이용률					인터넷이용률	●	인터넷이용률, 이용시간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범죄율	강력범죄 발생률	▲			총범죄 발생 및 검거	▲	주요범죄 발생건수	■	범죄발생률	▲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중첩	녹색성장지표	중첩	e-나라지표	중첩	사회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살인범죄율							주요범죄 발생건수	▲		
재범률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	김거울, 기소율, 유죄선고율	▲		
수용자수(교도관 1인당)							교도관수, 수용예산	■		
범죄피해율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					주요 범죄 피해율	▲		
범죄두려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이간보행두려움	이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								
경찰관수(인구 10만 명당)							경찰인당인구수, 경찰서수, 순찰차량수, 지구대당 순찰차량수	■		
기소율							김거울, 기소율, 유죄선고율	▲		
선거투표율	투표율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선거투표율	●		
여성국회의원비율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	여성의원 비율	■		
여성관리자공무원비율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	관리직 여성 비율	▲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중첩	녹색성장지표	중첩	e-나라지표	중첩	사회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사회단체참여율	사회단체 참여율	●					사회단체 참여율	●		
자원봉사참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자원봉사 참여율(성인)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대인신뢰도	대인신뢰	●					일반인에 대한 신뢰	●		
기관신뢰도	기관신뢰	●					기관과 제도에 대한 신뢰	●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	●			부패인식지수(CPI)	●				
사회이동가능성인식							이동가능성에 대한 태도	●		
사회적 고립도	사회적 관계망	●					사회적 관계 소통	■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		
지살률	지살률	●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	주요 사인별 사망률	■	지살 사망률	●
공공사회지출비율(GDP 대비)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					사회복지예산	▲	사회복지지출	●
공적연금수급률	공적연금 가입률	▲			공적연금 수급률	●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매매가격 동향	●	주택종류별 주택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주택전세가격 동향	●	주택종류별 주택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	■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중첩	녹색성장지표	중첩	e-나라지표	중첩	사회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주거비용	▲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
주택수(인구 1,000명당)					인구 천명당 주택수	●			주택 수	●
주거환경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					주거환경만족도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수송량 및 수송분담률	■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통근시간	통근·통학 소요시간	■					통근·통학 소요시간	■		
통학시간	통근·통학 소요시간	■					통근·통학 소요시간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인구 10만 명당)	도로 사망률	●			교통사고 현황(사망, 부상)	■	교통수단별 사고발생 건수와 사상자수(자동차, 철도, 해양, 항공기)	■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인구 10만 명당)							교통수단별 사고발생 건수와 사상자수(자동차, 철도, 해양, 항공기)	■		
미세먼지(PM2.5) 농도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SO ₂ , NO ₂ , PM-10, PM-2.5, O ₃)	■
미세먼지(PM10) 농도	미세먼지 농도	●	대도시 대기오염도(PM-10)	●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	대기오염물질 종류별 배출량	■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SO ₂ , NO ₂ , PM-10, PM-2.5, O ₃)	■
4대강 BOD 농도					수질현황	■			4대강 수질오염도 (BOD, T-P)	■
4대강 COD 농도					수질현황	■				

국기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중점	녹색성장지표	중점	e-나라지표	중점	사회지표	중점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점
먹는물 수질기준초과율							먹는 물의 수질현황	●		
상수도보급률					상수도 급수현황 (보급 및 급수량)	●	상수도 보급률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폐기물발생량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 발생량	■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재활용률	폐기물 재활용 비율	●	폐기물 재활용률	●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			폐기물 재활용률	●
생활폐기물발생량(1인당)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 발생량	■		
화학물질배출량					화학물질 배출량 및 통계 조사	●				
환경보호지출비율(GDP 대비)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			환경보호지출	■		
환경향상체감도	체감 환경 만족도	●								
지생생물종수					지생생물종 현황	●	한국산 생물종 현황	■	국가생물종 목록 수	■
유기농경작면적률			친환경 농산물생산면적	▲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자연보호지역비율	▲			보호지역 현황	■		
생태보호지역면적비율									자연보호지역비율	▲

국가주요지표	삶의질지표	중 첩	녹색성장지표	중 첩	e-나라지표	중 첩	사회지표	중 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첩
산지타용도전환면적					산지의 타용도 전용 현황	●				
물사용량(1인당) 취수율									1인당 1일 물소비량 취수율	●
연인습지면적					연인습지(갯벌) 면적의 변동 추이	●	갯벌면적	▲	갯벌 면적 증감	▲
해양보호구역면적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				
온실가스배출량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총배출량	●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량	●
자연재해피해액							태풍, 호우 및 대설 발생빈도와 피해액	■	자연재해 피해	●
자연재해발생횟수							태풍, 호우 및 대설 발생빈도와 피해액	■		
석탄화력발전비용			최종에너지 소비비중(석탄)	▲			최종에너지 종류별 소비량	▲		
전력소비량(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비중(전력)	▲			최종에너지 종류별 소비량	■		
신·재생가능에너지공급량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

〈부표 1-4〉 주요 지표체계 간 지표 중첩성 분석_삶의질지표 기준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중첩	e-나라지표	중첩	사회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1인당 GNI			1인당 GDP, GNI	■				
가구평균 순자산			가구평균순자산	●				
지니계수			소득 분배(Gini 계수)	●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소득5분위, 상대적빈곤)	■		
상대적 빈곤율			기준 중위소득 및 빈곤율 추이	▲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소득5분위, 상대적빈곤)	■		
소득만족도					소득만족도	●		
소비생활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		
고용률			일반고용동향	■				
실업률			일반고용동향,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	실업률, 장기실업자 비중	■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근속연수 및 월평균임금	▲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총액	■				
일자리 만족도					근로조건 만족도, 고용안정성	■		
공적연금 가입률			공적연금 수급률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사회복지 지출규모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수	●
통근/통학 소요시간					통근·통학 소요시간	■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중첩	나라지표	중첩	사회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주거비용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	●		
기대수명		●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출생 사망 추이	●	성별 출생시 기대수명	■	기대여명	●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고혈압 유병률	■		
당뇨병 유병률					당뇨병·고혈압 유병률	■		
비만율		●	비만 유병률	●	신체활동실천율, 비만유병률	■	비만율	●
주관적 건강평가					주관적 건강평가	●		
스트레스 인식정도					스트레스인지율, 우울증상경험률	■		
유아교육 취학률			취학률 및 진학률	■	취학률	■		
고등교육 이수율							고등학교 순졸업률	▲
평생교육 참여율					평생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		
학업 중단율					학업중단율	●		
학생 1인당 시교육비 지출액					시교육 참여율과 시교육비	■		
PISA 백분위 순위			OECD 학업성취도(PISA) 순위	●	학교급별 학업성취도	▲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중첩	e-나라지표	중첩	사회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대졸생 취업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졸업생 취업률	■		
평균 여가시간					평균 여가시간	●		
1인당 국내의 여행일수			해외여행자수	▲	국내관광여행, 해외여행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공연장 입장률	●		
문화여가 지출 비율					문화여가비, 정보통신비	■		
여가활동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도	●		
한부모 가구 비율			한부모 가구 비율	●				
자살률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	주요 사인별 사망률	■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 소통	■		
사회단체 참여율					사회단체 참여율	●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별 만족도	●		
투표율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 선거투표율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부패인식지수			부패인식지수(CPI)	●	부패인식지수	●		
대인신뢰					일반인에 대한 신뢰	●		
기관신뢰					기관과 제도에 대한 신뢰	●		
강력범죄 발생률					주요범죄 발생건수	■	범죄발생률	▲

삶의질지표	녹색성장지표	중첩	e-나라지표	중첩	사회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주요 범죄 피해율	▲		
도로 사망률					교통수단별 사고발생 건수와 사상자수(자동차, 철도, 해양, 항공기)	■		
이동안전사고 사망률			이동 안전사고 현황	■	사망률(이동안전사고사망률)	■		
산업재해율			산업재해현황	●	산업재해지수, 사망자수	■		
화재 발생 건수			화재발생 현황	●	화재 발생건수, 건당 피해액 및 사망자수	■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미세먼지 농도	대도시 대기오염도(PM-10)	●			대기오염물질 종류별 배출량	■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SO ₂ , NO ₂ , PM-10, PM2.5, O ₃)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에너지 빈곤층 비율	에너지 빈곤층 가구	●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변화추이	●	하수도 보급률	●		
폐기물 재활용 비율	폐기물 재활용률	●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제현황	■			폐기물 재활용률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	■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		
공정정서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		
부정정서					삶에 대한 만족감과 정서 경험	■		

〈부표 1-5〉 주요 지표체계 간 지표 중첩성 분석_녹색성장지표 기준

녹색성장지표	에너지지표	중첩	사회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온실가스 총배출량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	■	온실가스 배출량	●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수송량 및 수송분담률	■	교통수단별 여객 수송실적 및 분담률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통근·용·자전거 이용률			통근·통학 교통수단	■		
최종에너지 소비비중	에너지 수급현황	●	최종에너지 종류별 소비량	■		
GDP당 에너지소비량					에너지 원단위	●
1인당 에너지소비량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
GDP대비 국내 총 R&D비중	총 연구개발비	●	GDP대비 자원별 연구개발투자비	■	GDP대비 R&D 지출 비율	●
폐기물 재활용률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			폐기물 재활용률	●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중			환경보호지출	■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기물 발생량	■		
자연보호지역비율			보호지역 현황	▲		
대도시대기오염도(PM-10)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	대기오염물질 종류별 배출량	■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SO ₂ , NO ₂ , PM-10, PM-2.5, O ₃)	■
GNI대비 ODA비중	GNI대비 및 1인당 ODA 추이	●			GNI대비 ODA비중	●

〈부표 1-6〉 주요 지표체계 간 지표 중첩성 분석_사회지표 기준

사회지표	내리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총인구, 자연증가율, 인구성장률	총인구, 인구성장률	■	인구 증가율	■
성 및 연령별 인구	남녀별 연령별 인구구조	●		
성 및 연령별 혼인상태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		
성 및 연령별 사망률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출생 사망 추이	◆		
성별 출생시 기대수명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건강수명), 출생 사망 추이	◆	기대여명	●
성 및 내외국인별 국제인구이동	국제인구 이동	●		
시·도별 인구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		
지역별 진·출입인구 및 순인구 이동률	국내인구 이동	●		
주요 사인별 사망률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		
성별 영아사망률	영아/모성 사망	■	영아 사망률	●
성 및 연령별 신체활동실천율, 비만유병률	비만 유병률	■	비만율	■
암 검진 수검률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수검률	●		
GDP대비 국민의료비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율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율	■
조혼인율, 조이혼율 및 재혼건수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		
연령 및 교육수준별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및 실태	●		
학교급 및 성별 취학률	취학률 및 진학률	■		
학교급 및 성별 진학률	취학률 및 진학률	■		

사회지표	e-나라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평생교육 참여율 및 참여시간	평생학습 참여율	■		
교육단계별 GDP대비 공교육비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	●	공교육비 지출	■
GDP대비 재원별 연구개발투자비	총 연구개발비	●	GDP대비 R&D 지출 비율	■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
학교급별 도서관 이용 및 독서정도	학교도서관 현황	▲		
인구 만명당 대학생수 및 박사학위 취득자수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		
학교급별 졸업생 취업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교육수준별 월평균 임금수준	학력별 임금 격차	●		
IMD 교육경쟁력 국가 순위	IMD 교육경쟁력 순위	●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일반·고용동향	■	고용률	■
성별 산업률과 장기실업자 비중	일반·고용동향,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	실업률	■
성별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			관리직 여성 비율	■
성별 장년층의 취업현황	청년 고용동향	●		
성별 고령층의 취업현황	고령자 고용동향	●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사회지표	e-나라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성별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무연수 및 월평균임금액	근로자 평균근속연수, 평균연령, 학력별 임금	●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근로시간	■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증가율	노동생산성 지수	■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영향을 및 미달자 비율	최저임금 일반현황	■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현황	●	사고(성)사망	■
임금근로자의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시간당 임금 수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		
노동조합 조직률, 노사분규건수, 근로손실일수	노동조합 조직현황	■		
GDP 및 GNI, GDP 디플레이터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	국내총생산	■
1인당 GDP 및 GNI	1인당 GDP		1인당 GDP	■
농가의 소득원천별 구성비	농가 소득현황	▲		
소득분배지표	소득 분배(Gini계수)	■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
재화형태별 국내소비지출 구성비(당해년 가격)	소비동향	▲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조세부담률	■		
국가채무 규모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국가채무추이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
주택보급률과 인구 천명당 주택수	주택보급률	■		
건설기관별 주택건설실적	주택건설인허가실적	■		
주택규모별 공공임대주택 제고	임대주택 제고	●		
주택규모별 주택 제고	유형별제고주택현황	●		

사회지표	e-나라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교통기반 시설규모			자전거 도로 총 연장	■
교통수단별 여객 수송실적 및 분담률	수송량 및 수송분담률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화물 수송실적	수송량 및 수송분담률	■		
통근,통학 교통수단				
도로교통 혼잡비용	도로교통 혼잡비용	●		
물류비용	국가물류비 현황	●		
온실가스 종류별 배출량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종류별 배출량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	광역시권별 대기오염도(SO ₂ , NO ₂ , PM ₁₀ , PM _{2.5} , O ₃)	■
하·폐수 발생량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량 현황	■		
해양오염사고 물질별 유출량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	■		
폐기물 발생량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량	■
화학물질 배출량	화학물질 배출량 및 통계 조사	■		
원자력 발전소별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
용도별 물 이용량	상수도 급수현황(보급 및 급수량)	■		
최종에너지 종류별 소비량	에너지 수급현황	●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
주요도시의 대기오염도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		
지역별 소음공해도	주요 대도시 환경소음도	●		

사회지표	e-나라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용지 종류별 토양오염도	토양오염도 현황	●		
보호지역 현황				
갯벌면적	연안습지(갯벌) 면적의 변동 추이	●	갯벌 면적 증감	▲
산림면적	산림/국유림 면적 및 임목축적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	멸종위기종 수	■
한국산 생물종 현황	자생생물종 현황	●	국가생물종 목록 수	■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 보급률(보급 및 급수량)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하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변화추이	■		
환경보호지출				
태풍, 호우 및 대설 발생빈도와 피해액			자연재해 피해	■
황사, 폭염, 한파 발생일수	황사발생 빈도	■		
화재 발생건수, 건당 피해액 및 사망자수	화재발생 현황	■		
소방관수 및 소방자동차수	소방인력 현황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출생 사망 추이	■		
집단 식중독 환자수	집단 식중독 신고건수 및 환자수	●		
형법범 중 주요범죄 발생건수			범죄발생률	■
경찰관수 및 순찰차량수	경찰 인력 현황	■		
법률 구조, 상담건수 및 개업변호사수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 현황	■		
형사사범기관의 성과	총범죄 발생 및 검거	■		

사회지표	e-나라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첩
교정시설 수용현황	교정시설 수용현황(1일 평균 수용 인원)	●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	●		
문화예술시설 수	공공도서관 현황	■		
통신서비스 종류별 가입자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독서인구 비율(복수응답)	독서인구	●		
성 및 연령별 국내관광여행 및 해외여행 횟수와 비율(복수응답)	해외여행자수	■		
성 및 연령별 생활체육 참여율	국민생활체육 참여현황	●		
성 및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시간(주평균)	인터넷 이용률	■		
성 및 연령별 인터넷 중독률	인터넷 중독률	●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 참여율(성인)	●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기부	현금 기부 인구	■		
성, 연령별 지살률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지출	▲
공적연금 수급자와 수급자 비율	공적연금 수급률	■		
지역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급여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류별 시설수와 평균 종사자수 및 수용인원	노인복지시설 현황	▲		

〈부표 1-7〉 주요 지표체계 간 지표 중첩성 분석_지속가능발전지표 기준

지속가능발전지표	e-나라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e-나라지표	중첩
빈곤인구비율	기준 중위소득 및 빈곤율 추이	■	화학비료 사용량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소득 분배(Gini계수)	●	농약 사용량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
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 지출규모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
실업률	일반고용동향,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	수도권 인구 집중도	수도권과 지방현황	■
고용률	일반고용동향	■	연인오염도(COD)	전국연안 수질(COD)현황	●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총액	■	해양보호구역 면적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	갯벌 면적 증감	연안습지(갯벌) 면적의 변동 추이	●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면허권 당 양식어업량	어업생산량 및 양식량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일반고용동향	■	취수율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
관리직 여성 비율	여성 전문-관리직 종사자 구성비	●	4대강 수질오염도(BOD, T-P)	수질현황	■
유소년 영양 상태	국민영양 현황	■	국가생물종 목록 수	자생생물종 현황	●
영어 사망률	영어모성 사망	■	멸종위기종 수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
자살 사망률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
기대여명	기대수명(0세 기대여명) 및 유병기간 제외 대수명(건강수명), 출생 사망 추이	◆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GDP)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상수도 급수현황(보급 및 급수량)	●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
비만율	비만 유병률	●	무역수지	정상수지 및 무역수지	■

지속가능발전지표	e-나라지표	중첩	지속가능발전지표	e-나라지표	중첩
공교유비 지출	학생 1인당 공교유비	●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	●
범죄발생률	총범죄 발생 및 검거	▲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국가채무추이	●
사고사망인원율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	▲	GNI대비 ODA 비율	ODA 원조규모	●
인구 증가율	총인구, 인구성장률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인구 밀도	지역별 인구 및 인구밀도	■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생활, 사업장(일반, 건설)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고령인구비율	총인구, 인구성장률	■	지정폐기물 발생량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	폐기물 재활용률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수송량 및 수송분담률	■
주택 수	인구 천명당 주택수	●	자전거 도로 총 연장	자전거도로 현황	●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SO ₂ , NO ₂ , PM ₁₀ , PM _{2.5} , O ₃)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
농지면적 비율	경지면적 추이	▲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서비스 이용현황	▲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친환경 농산물 생산 추이	●	GDP 대비 R&D 지출 비율	총 연구개발비	●
식량자급률	수산물 소비량(연간 1인당)과 자급률	▲			

주: e-나라지표는 각 부처에서 지표를 제공하는 공급자중심의 지표체계로 그 안에 동일 지표가 중복적으로 나타나 e-나라지표를 기준으로하는 비교표는 생략함

〈부표 1-8〉 주요 지표체계 간 지표 중첩성 분석_SDG 글로벌지표 기준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1.1.1 국제 빈곤선 미만에서 살고있는 인구 비율 (성·연령·고용상태 및 지역(도시/농촌)별)						
	1.2.1 국가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 (성 및 연령별)	상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빈곤인구 비율
	1.2.2 국가별 정의에 따른 모든 차원의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의 비율						
	1.3.1 사회적 보호의 적용을 받는 인구비율(상·특수아동·실업자·노령자·장애인·임산부/신생아·산업재해피해자·빈곤층 및 취약계층별)						
	1.4.1 기초 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가구에 살고 있는 인구 비율						
	1.4.2 법적으로 인정된 문서를 통해 안정된 토지권을 갖고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여기는 성인 인구 비율(성 및 토지권 종류별)						
	1.5.1 인구 10만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		자연재해 피해액				자연재해 및 대설 발생 빈도와 피해액
	1.5.2 국제 GDP 대비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 규모		자연재해 피해액				자연재해 피해
	1.5.3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적인 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 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5.4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위험감축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목표	SIG 클로벨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웰빙 증진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자생생물종 수				한국산 생물종 현황	국가생물종 목록수(종)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현황	멸종위기종 수(종)
	2.a.1 정부 지출의 농업 편향 지수						
	2.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공적 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지원금)						
	2.b.1 농업수출보조금						
	2.b.2 농업수출지원금						
	2.c.1 식품가격이상지표(food price anomalies)						
	3.1.1 산모 사망률						
	3.1.2 숙련된 보건인력이 진료한 출산의 비율						
	3.2.1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3.2.2 신생아 사망률						성별 영아사망률
	3.3.1 비감염인구 1000명당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 (연령, 성 및 주요 인구별)						
	3.3.2 연간 100,000명당 TB(결핵) 발병건수						성별 결핵신원율과 성 및 연령별 당초병과 고혈압 유병률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3.3.3 인구 1,000명당 팔라리아 발병건수						
	3.3.4 인구 100,000명당 B형 간염 발병건수						
	3.4.1 심혈관계질환, 암, 당뇨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성별 결핵신원율과 성 및 연령별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	
	3.4.2 자살사망률	자살률	자살률			성 연령별 자살률	자살 사망률
	3.5.1 약물남용 장애 치료(의약, 심리사회적, 재활 및 사후관리 서비스) 보장 범위						
	3.5.2 (15세 이상인구) 1인당 알코올의 연간 해로운 소비량	음주율 (월간 폭음률)				성 및 연령별 흡연율, 간접흡연 노출률 및 고위험 음주율	
	3.6.1 도로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사망률	도로교통사 고사망지수 (인구 10만 명당)	도로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3.7.1 현대적 방식의 가족계획을 필요로 하는 기임기 여성(15-49세) 비율						
	3.7.2 각 연령층별 여성 1,000명당 청소년(10-14세, 15-19세) 출산율						

목표	SI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3.8.1 필수 보건 서비스의 보장(일반적으로 가장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추적치료를 기초로 제공되는 임신, 모성, 신생아 및 아동 건강, 전염병, 전염되지 않는 질병 그리고 서비스 능력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하는 필수 서비스의 평균적인 보장으로 정의)						
	3.8.2 총 기구수입 혹은 지출에서 의료비 비율	건강보험 보장률				GDP 대비 국민의료비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율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3.9.1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3.9.2 안전하지 않은 물, 하수처리 그리고 부족한 위생시설로 인한 사망률						
	3.9.3 의도하지 않은 중독에 의한 사망률						
	3.a.1 연평균증가를 적용한 15세 이상 인구 중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인구 현황	흡연율 (현재 흡연율)				성 및 연령별 흡연율, 간접흡연 노출률 및 고위험 흡주율	
	3.b.1 국가 정책 상 모든 백신으로 커버 가능한 대상인구(target population)의 비율						
	3.b.2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부문에 대한 순 ODA 총액						

목표	SIG 클로벨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4.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3.b.3 필수적으로 연관된 의약품의 핵심세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가능하고 구매 가능한 의료시설 비율						
	3.c.1 보건 근로자 밀도 및 분포	의사수 (인구 1,000명당)				인구 천 명당 의사수, 간호사수 및 병상수	
	3.d.1 국제보건규정(IHR)에 의한 수용능력 및 응급대처 능력						
	4.1.1 (a) 초등학교 2/3 시점, (b) 초등학교 졸업학년 (c) 중학교 졸업학년에 (i) 읽기와 (ii) 수학분야에서 최소수준(proficiency)기준을 달성한 아동 및 청소년 비율 (성별)						
	4.2.1 건강, 학습 및 심리사회적 웰빙 발달정도가 정상적인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성별)						
	4.2.2 체계적 교육에 대한 참여율(공식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되기 전 한 해 동안)(성별)			유아교육 취학률			
	4.3.1 지난 12개월 동안 공식 및 비공식 교육 및 훈련 참여한 청소년 및 성인의 비율(성별)		고등교육 기관진학률				
	4.4.1 정보통신기술(CT) 능력을 보유한 청소년/성인의 비율(기술유형별)						
	4.5.1 모든 교육 지표에 대한 형평성 지수(parity indices)(성, 도농, 소득분위, 장애상태, 토착민, 분쟁 영향 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세분화)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4.6.1 기능적인 (a) 문해력과 (b) 수리력에서 적어도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달성한 연령 집단별 인구 비율 (성별)						
	4.7.1 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하는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 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						
	4.a.1 (a) 전기; (b) 교육 목적의 인터넷, (c) 교육 목적의 컴퓨터; (d) 장애학생을 위한 설비와 자료 (e) 기초식수 (f)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 기초위생 시설; (g) 기초손씻기 시설(WASH 지표)물, 위생시설 위생관념) 지표 정의에 따른) 등에 접근할 수 있는 학교 비율						
	4.b.1 장학금의 공적개발원조(ODA) 금액 규모(연구 부문 및 연구유형별)						
	4.c.1 해당 국가에서 (a) 취학전; (b) 초등학교; (c) 중학교; (d)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계화된 예비교사 연수 및 직무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5.1.1 성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 강제 그리고 모니터 할 수 있는 법적체계 존재여부						
	5.2.1 파트너가 있었던 15세 이상의 소녀와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현재 혹은 이전의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폭력의 형태와 연명별)						

목표	SI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5.2.2 15세 이상의 소녀 및 여성 중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친밀한 파트너 이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적 폭력을 당한 이들의 비율(연령별 및 사건 발생 장소별)						
	5.3.1 20-24세 여성 중에서 15세 이전/18세 이전에 결혼 또는 동거를 했던 여성의 비율						
	5.3.2 15-49세 소녀와 여성 중에서 여성할례를 경험한 비율 (연령별)						
	5.4.1 무급가사 및 돌봄 노동에 소요한 시간 비율 (성, 연령 및 지역별)	가사노동 시간				성 및 연령별 가사노동 분담실태	
	5.5.1 (a)국회의 여성 의석 비율 (b)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여성국회 의원비율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5.5.2 관리직에서 종사하는 여성 비율						관리직 여성 비율
	5.6.1 성관계, 피임제 사용 및 생식보건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비율						
	5.6.2 15세 이상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 및 생식 보건에 대한 보건 의료, 정보, 교육에 대하여 완전하고 평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국가의 수						
	5.a.1 (a) 농경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확실한 권리를 가진 전체 농업인구의 비율 (성별) (b)농경지 소유자 또는 토지 관리권을 가진 사람 중 여성의 비율 (보유기간별)						

목표	SI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6. 모든 사람의 식수와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능력 확보	5.a.2 토지소유나 통제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기법(관습법을 포함)을 갖춘 국가의 비율						
	5.b.1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의 비율(성별)						
	5.c.1 성평등과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 자원배분과 추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의 비율						
	6.1.1 인건비에 관리되는 식수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6.2.1 비누와 물이 있는 손씻기 시설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서비스시설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						
	6.3.1 안전하게 처리되는 폐수의 비율						
	6.3.2 주변 수질이 양호한 수계(bodies of water)의 비율						
	6.4.1 시간에 따른 물 이용 효율성 변화						
	6.4.2 물 스트레스 수준: 담수취수						취수율
	6.5.1 통합 수자원관리 이행 정도(0-100)						
	6.5.2 물협력을 위한 운영협정을 맺고 있는 초국적 구역 비율						
	6.6.1 시간 경과에 따른 물 관련 생태계 규모의 변화						
	6.a.1 정부의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위생 분야 관련 ODA 금액						
	6.b.1 물 및 위생관리에 대한 지방 커뮤니티의 참여를 위한 확립된 행정적 정책과 절차를 갖추고 있는 지방행정단위의 비율						

목표	SIG 클로벨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7. 저렴하고, 믿을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현대식 에너지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7.1.1 전기 접근성을 갖고 있는 인구비율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비율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신재생가능 에너지발전량비율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신재생에너지 종류별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7.3.1 1차 에너지와 GDP의 측면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약도	석탄화력발전비율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8. 모두를 위한 일관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촉진	7.b.1 지속가능한 발전 서비스 인프라와 기술에 대한 재정이전 분야에서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8.1.1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경제성장률					경제 성장률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임금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율
	8.3.1 비농업부문에서 비공식 고용율(성별)						
	8.4.1 물질발자국, GDP대비 및 1인당 물질발자국						
8.4.2 국내 물질 소비량, GDP대비 및 1인당 물질소비량							

목표	SI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8.5.1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 (직업, 연령 및 장애별)					성별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근속기간 및 월임금액	
	8.5.2 실업률(성, 연령, 장애인별)	실업률	실업률			장기실업률	실업률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 (15-24세)의 비율						
	8.7.1 5-17세 아동 중 아동노동인구와 비율(성 및 연령별)						
	8.8.1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빈도(성별 및 이주 상태별)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산업재해 도수율, 재해강도를 및 재해시망률	
	8.8.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						
	8.9.1 전체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가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GDP						
	8.9.2 전체 관광산업 일자리(jobs) 중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분야 일자리 수의 비율						
	8.10.1 성인 100,000명 당 상업은행 지점들과 ATM의 개수						
	8.10.2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제공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5세 이상) 성인인구 비율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9. 회복력 높은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육성	8.a.1. 무역원조(Aid for Trade) 약정 및 지불							
	8.b.1.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및 운영여부 -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 인지 여부							
	9.1.1 사계절 도로(all-season road)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인구비율							
	9.1.2 승객 및 운송량(교통수단별)			대중교통수송 분단물 지하철-철도 수송분단물		교통수단별 여객 수송실적 및 분단물	대중교통 수송분단물	
	9.2.1 GDP와 1인당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1 총 산업부가가치 중 소규모(small-scale) 산업 비율							
	9.3.2 부채 혹은 신용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1 부가가치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율		연구개발투 자비율 (GDP 대비)		GDP 대비 국내 총 R&D 비중		GDP 대비 재원별 연구개발 투자비	GDP 대비 R&D 지출 비율
	9.5.2 거주자(inhabitants) 백만 명당 (전일제) 연구자 수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공적지원 (ODA+기타공적자금)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0. 국내적 및 국가 간 불평등 경감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 기술 산업 부가가치 비율						
	9.c.1 모바일네트워크 사용 인구 비율(기술별)						
	10.1.1 총인구 및 소득 하위 40% 인구의 가구지출 혹은 1인당 소득 성장률						
	10.2.1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10.3.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 으로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을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						
	10.4.1 GDP 중 임금과 사회보장이전으로 구성된 노동소득비율	노동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
	10.5.1 금융건전성지표(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10.6.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 (voting rights) 비율						
	10.7.1 이주국가에서 얻은 연소득 대비 이주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비용의 비율						
	10.7.2 잘 관리되는 이주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수						
10.a.1 관세가 없는 최빈개도국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선 비율							
10.b.1 공여국과 수원국별 개발을 위한 총지원 자원 투입(예: ODA, 해외직접투자 및 기타 투입)							
10.c.1 송금총액에서 송금비용의 비율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도시인구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11.2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 (연령, 성 및 장애별)							
	11.3.1 인구성장률 대비 토지소모 비							
	11.3.2 장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비율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유산종류(문화, 자연, 복합, 세계유산센터 등재),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 지출종류(운영비/투자), 민간자금종류(기부, 민간 비영리, 스폰서)별)							
	11.5.1 인구 100,000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1.6.1 도시에서 발생하는 전체 고형 폐기물 중 정기적으로 수거되고 적절한 최종처리단계를 거치는 도시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인구수에 따른 기준)		미세먼지 (PM2.5) 농도 미세먼지 (PM10) 농도	미세먼지 농도	대도시 대기오염도 (PM10)		지역별 대기오염도	광역도시관별 대기오염도 (SO ₂ , NO ₂ , PM10, PM2.5, O ₃) (초과횟수/ 측정지점)

목표	SI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2. 지속 가능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의 용도를 위해 개방된 공용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비율(성, 연령, 장애, 발생장소별)						
	11.a.1 인구 추계와 자원 수요를 통합하여 수립된 도시 및 지역발전계획을 이행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도시크기별)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임워크(2015 -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1.b.2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11.c.1 최빈개도국 내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자원효율적인 건물을 짓고 재건축하는데 소요되는 최빈개도국 재정지원비율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CP) 국가실행계획이나 SCP를 주류로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 수						
	12.2.1 물질발자국, 1인당 및 GDP대비 물질발자국						
	12.2.2 국내 물질 소비량, 1인당 및 GDP대비 물질 소비량						
	12.3.1 글로벌식량손실지수(GFLI)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인당)	폐기물 재활용 비율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발생량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12.4.2 1인당 발생하는 유해폐기물과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들과 실행 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들의 수						
	12.8.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주류화 정도						
	12.a.1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환경 친화적인 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지원되는 금액						
	12.b.1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수단을 가진 지속 가능한 관광 진략이나 정책 그리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						
	12.c.1 GDP 단위(생산과 소비)당 화석연료보조 금액수 및 화석연료에 대한 총 국가지출대비 화석 연료 보조금 비율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위한 긴급조치	13.1.1 100,000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affected)를 받은 인구 수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적인 재난위험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3.1.3 국가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방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지방정부의 비율						
	13.2.1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적응하고, 기후회복력을 배양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통합된 정책, 전략, 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논의해 온 국가의 수(국가 적응계획,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국가보고서, 격년별로 갱신되는 보고서 등을 포함)						
	13.3.1 완화, 적응, 영향 저감, 조기 경보를 초중고 등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국가들의 수						
	13.3.2 적응, 완화, 그리고 기술 이전 및 개발 이행을 위한 기관, 시스템, 그리고 개인의 역량 강화를 논의해 온 국가의 수						
	13.a.1 약속된 1천 억 달러 재원 조성에 대해 2020 ~2025년 실제 모금되는 연도별 금액						
	13.b.1 여성, 청소년, 지역 및 소외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매커니즘 개발을 위해 금융, 기술, 역량개발을 비롯한 특별지원과 지원금을 받고 있는 최빈 개도국과 중소 도서 개발국의 수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4.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용	14.1.1 연안해양 부영양화지수 및 부유성 플라스티크 부유성 폐기물 밀도						
	14.2.1 생태계 기반의 접근방식으로 관리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비율						
	14.3.1 합의된 대표 표본 추출 지점들에서 측정되는 평균 해양산도(pH)						
	14.4.1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어족 자원의 비율					어업형태별 어획량	주요지표종 (5종)의 자원량 변화(만,톤)
	14.5.1 해양 면적 대비 보호구역의 비율					보호지역 현황	해양보호구역 면적(km ²)
	14.6.1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수단을 이행하는 국가별 진척도						
	14.7.1 군소도서 개발국, 최빈개도국 그리고 모든 국가의 GDP 중 지속가능한 어업 비율						
	14.a.1 전체 연구예산 중 해양기술부문 연구에 할당된 예산비율						
	14.b.1 소규모 영세어민을 위해 해양자원에 대한 접근을 인장하고 보호하는 법/규제/정책/제도적인 프레임워크의 국가별 적용 단계에서의 진척도						
	14.c.1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법, 정책, 제도들 통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국제법을 이행하기 위한 대양 관련 장치를 비준, 적용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전을 보이는 국가의 수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5. 육상 생태계에 대한 보호,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용; 산림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 사민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단 및 복원,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산림면적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 비율(생태계 유형별)	생태경관보전 지역 면적		자연보호 지역비율		보호지역 현황	자연보호지역 비율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15.3.1 국토면적 대비 황폐화 지역 비율						
	15.4.1 산림생물다양성 관련 중요 보호지역 면적				자연보호 지역비율	보호지역 현황	자연보호 지역 비율
	15.4.2 산림피복 지수(Mountain Green Cover Index)						
	15.5.1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						
	15.6.1 공경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임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1 「생물다양성 전략계획2011-2020」의 Aichi 타겟2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15.a.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목표	SI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6.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추진 사범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5.b.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ODA 중 녹색ODA 비중			
	15.c.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16.1.1 인구 100,000명당 의도된 살인범죄의 피해자 수(연령별 및 성별)		강력범죄 발생률			주요범죄 발생률, 유형별 범죄발생 건수, 형법범 중 주요범죄 발생건수 (미성년자 성범죄대 포함)	범죄발생률
	16.1.2 인구 100,000명당 분쟁관련 사망(연령별, 성별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 동안 육체적, 심리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		강력범죄 발생률				
	16.1.4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홀로 안전하게 걷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범죄 두려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성 및 연령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보호자의 신체적 체벌이나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6.2.2 인구 100,000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별, 연령별, 취약형태별)						
	16.2.3 18-29세 남녀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비율					형법범 중 주요범죄 발생건수 (미성년자 성착취대 포함)	
	16.3.1 지난 12개월간 관찰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피해자 비율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16.3.2 전체 교도소 수용자 중 판결이 나지 않은 수감자의 비율						
	16.4.1 국내의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현 미국달러화 기준)						
	16.4.2 입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체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16.5.1 지난 12개월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16.5.2 지난 12개월간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기업인의 비율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의 부문별 또는 예산코드별 비율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16.7.1 국가 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의 임법부, 행정부, 사법부) 보직 분포비율(연령, 성별, 장애 및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통합적이고 수용적(responsive)이라고 믿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 집단별)						
	16.8.1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voting rights) 비율						
	16.9.1 5세 미만 아동 중 행정 당국에 출생신고된 비율(연령별)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으로 확인된 사건 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16.b.1 국제인권법의 차별금지예 근거해 최근 12개월 내 개인적으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음을 보고한 인구의 비율						

목표	SI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7. 이행 수단 강화 및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17.1.1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항목별)						
	17.1.2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예산의 비율						
	17.2.1 OECD/개발 원조 위원회(DAC) 공여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1) 총 순 ODA의 비율 2) LDC(최빈개도국)에 대한 순 ODA 비율				GNI대비 ODA비중		GNI대비 ODA 비율
	17.3.1 총 정부예산 중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 협력의 비율						
	17.3.2 총 GDP 중 송금액의 비율(미달러 기준)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7.5.1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1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협력 형태별)						
	17.6.2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속도별)						성 및 연령별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 (종류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 승인 금액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인터넷 이용률				성 및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시간 (주평균)	
	17.9.1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재정 및 기술지원금액(달러기준)						
	17.10.1 국제 기증 관세 평균치						
	17.11.1 전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						
	17.12.1 개발도상국, 최빈개도국 및 중소도서 개발 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발도상국 주도 성과체계에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 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의 수						
	17.17.1 민간 및 시민단체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목표	SDG 글로벌지표	국가주요 지표	삶의질지표	녹색성장 지표	e-나라지표	사회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17.18.1 세부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적 단위에서 생산된 완전히 세분화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 법령을 갖고 있는 국가의 수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가진 국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17.19.1 개발도상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 가치						
	17.19.2 지난 10년 동안 a)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 총 조사를 진행했고, b)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